

KB증권  
**BUY KOREA BUY BOND**  
채권 투자는 KB증권

\*투자 전 발행일 및 신용등급서 확인 필수. \*금융정보업 및 보호상품 아닌 \*자산가치변동 \*금융변동  
> 신용등급 하락 시 주가 변동 가능성 있음 또는 만기 불상 지급 또는 만기 불상 지급 또는 만기 불상 지급  
신용등급 기준: AAAAA~A, BBB 이하 \*0.~0.9%로 투자자 부담 부담

제3237호	대표전화: 02)799-2600 / 구독: 02)799-2684
 추경호 “내년 성장률 2%대… 주요국 중 韓 유일” 4	 광화문 월대 복원… 100년 만에 옛 모습 되찾아 19

코스피(13일 전주 대비)	코스닥
▲ 2465.15 (+47.42P)	▲ 822.78 (+6.39P)
환율(달러당 원화)	금리(국고채 3년물)
▲ 1350.00 (+0.10원)	▼ 3.957% (-0.058%p)

## ‘금융문맹’ 사회초년생, 빛 갚느라 빛 못본다

## 560억 불법 공매도 글로벌 IB 2곳 적발

### 스페셜 리포트

#### 금융 문맹률 낮추자 ①

‘금융문맹(financial illiteracy)’. 금융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는 사람을 글자를 모르는 문맹에 빗댄 말이다. 2023년 현재 국내 금융 소비자 대다수는 금융문맹 상태다. 금융 지식이 생존의 필수 요소라는 것은 십수 년 전부터 수없이 강조돼 왔다. 저축은행 후순위 사태, 신용카드 대란, 라임 펀드 등 대규모 소비자 피해로 필요성을 직접 체험했다. 하지만 금융에 대한 기초 지식조차 없거나 수준이 낮은 ‘돈맹(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함)’ 상태는 여전히 세대 이전되고 있다. 이들이 자칫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경우 국가 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본지는 한국 금융교육의 실태와 문제점을 짚고, 금융당국과 금융기관의 노력을 소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기획 시리즈를 싣는다.



**무사 기원… 무사 귀환**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7일째인 13일(현지시간) 이스라엘 관문인 벤구리온 국제공항에서 참전을 위해 미국에서 귀국한 이스라엘 남성이 가족들과 재회하고 있다(왼쪽). 이스라엘에 고립됐던 우리 국민을 비롯한 현지 체류자들이 14일 밤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공군 KC-330 ‘시그너스’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에서 내려 가족과 만나고 있다. ▶관련기사 4면 연합뉴스

#### 부동산·가상자산 등 묻지마 투자 2030세대 1년간 대출액 134兆 연체잔액 7개월새 1416억 늘어 범죄 휘말려 신용불량자 되기도

#### “학교 중심 금융 공교육 시행해야”

빌려 ‘일확천금’을 꿈꾸거나 금융사기에 넘어가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일은 없었 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조기 금융교육은 소득양극화화도 상관관 계가 있는 만큼 학교를 중심으로 한 금융 공교육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3면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

우리·NH농협은행) 및 6대 증권사(한국 투자·미래에셋·삼성·NH투자·키움·메리츠증권)로부터 2030 청년층이 받은 대출 규모는 전체(476조938억 원)의 28.1%에 달했다. 꼬리를 무는 빛에 원리금도 제 때 갚지 못하는 청년들도 급증했다. 지난해 말 3524억 원이었던 이들의 연체 잔액은 올해 7월 4940억 원으로 7개월 새 1416억 원이 늘었다.

자발적으로 돈을 빌리는 사람이 아닌 자신도 모르게 금융사기에 빠지는 경우는 더욱 뼈아프다.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된 전 세 사기 피해자도 10명 중 7명이 2030세 대였다. 청년층은 물론 은퇴세대, 금융취 약계층인 노인층을 타깃으로 한 불법 금융 피해사례도 여전히 횡행하고 있다. 사 채, 보이스포싱, 다단계 대출사기 등 수법 도 갈수록 교묘하게 진화하고 있다.

이처럼 청년층의 빚 급증과 계획적이지 못한 투자, 금융 사기에 쉽게 현혹되는 것

은 유년기, 청소년기에 걸쳐 제대로 된 금융교육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수없이 반복되는 대형 금융사고 피해로 ‘금융 리터러시(literacy·이해력)’와 이용자의 의식 전환이 금융 시스템 개혁의 핵심 과제라는 인식이 자리 잡으면서 금융당국과 금융사들은 금융 교육, 아카데미 등을 열고 있다. 하지만 금융 공교육 체계가 마련돼 시스템으로 정착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올바른 금융 습관은 자연히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학습을 통해 기르는 것”이라며 “금융 정보를 제대로 알고 판단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우리의 필수적인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재영 기자 lry0403@

후원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시민금융진흥원

글로벌투자은행(IB)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 사례가 처음으로 전모를 드러냈다.

15일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홍콩 소재 글로벌 IB 2개사에서 560억 원 규모의 무차입공매도 행위가 포착됐다. 이들은 이 같은 수법을 통해 수개월간 수수료를 챙겨온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17면

A사는 2021년 9월부터 2022년 5월 사이 101개 종목에 대해 400억 원 상당의 무차입공매도 주문을 냈다. A사는 다수의 내부 부서를 운영하면서 필요시 부서 상호 간 대차를 통해 주식을 차입(대여)하고 이 과정에서 대차내역 등을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아 소유주식을 중복 계산해 과다표시된 잔액을 기초로 매도주문을 제출했다. 그 결과 A사는 매매거래 다음 날 결제 수량 부족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점을 인지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사후차입 등을 통해 위법행위를 사실상 방지해왔다.

B사도 2021년 8월부터 같은해 12월 사이 9개 종목에 대해 160억 원 규모의 무차입공매도 주문을 했다. B사는 해외 기관투자자들의 매도소와 프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공매도 주문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차입이 확정된 주식 수량이 아니라 향후 차입 가능한 수량을 기준으로 매도소와 프계약을 체결하고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이후 체결된 공매도 수량을 기초로 차입계약을 사후확정하는 식으로 내부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위법행위를 방지했다.

A사 계열사인 국내 수탁증권사도 A사의 무차입공매도 주문을 지속적으로 수탁한 사실이 적발됐다. 해당사는 이 과정에서 잔액 부족 등을 파악했음에도 결제이행 촉구 외에 원인 파악 및 사전예방 조치 등을 취하지 않았다.

이번 불법공매도 건은 과징금제도 도입 이후 최대 규모의 과징금 부과가 예상된다. 정성욱 기자 sajikoku@

우주 여행을 떠나고, 로봇 친구를 사귀고  
더 큰 세상을 만나는 미래

미래는 지금, KDB산업은행에서  
잘 크고 있습니다

내일이 보고 싶다면 KDB산업은행

거세지는 '집값 바닥론'

# 공급가뭄 온다... "집주인 호가 안 낮출 것"

부동산 시장이 변곡점에 섰다. 정부의 규제 완화로 연착륙에는 성공했지만, 속 시원히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또뚝미지근한 상태가 이어지면서 하락이나 상승이나의 갈림길에 섰다. 이 가운데 각종 시장 지표들은 상승과 하락으로 엇갈리며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청약시장은 호조세를 보이면서 상승론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수도권 부동산 시장도 가격이 상당 부분 회복하면서 기대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1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청약 경쟁률 상승, 집값 오름세 등 주택경기 개선으로 해석 가능한 시장 지표들이 나오고 있다.

청약시장의 열기는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특히 청약 경쟁률의 상승 폭이 매섭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올해 1월 0.3대 1에 불과하던 전국 1순위 청약 경쟁률은 8월 19.9대 1로 상승했다. 서울은 4월(2.4대 1)을 제외하고 모두 5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하며 훈풍이

## 미분양 해소... 청약시장 가열 고분양가 논란 단지 완판행렬 내년까지 완만한 상승세 전망

불었다.

고분양가 논란이 나온 단지들도 속속 '완판' (완전 판매)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8월 광명4구역 재개발을 통해 공급된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는 전용 84㎡ 기준 11억~12억 원대로 분양해 비싸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결국 완판됐다.

청약시장이 살아나면서 장기미분양으로 남았던 단지의 계약률도 오르고 있다. 지난해 3월 강북구 수유동에 공급된 '칸타빌 수유팰리스'는 현재 미계약 10여 가구만을 남겨뒀 분양 마감에 임박했다. 이 단지는 9차례 무순위 청약, 4억 원 할인분양에도 미분양을 해소하지 못했으나 최근 수요자들의 매수세가 살아나며 분위



기반전에 성공했다.

집값도 오름세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을 보면 아파트 매매가격은 10월 둘째 주 기준으로 전국 13주, 서울은 21주 연속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매매가를 뒷받침하는 전셋값도 12주 연속 오름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아파트 하락 거래 비중은 줄고 있다.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8월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중 직전 거래가보다 1% 이상 하락한 거래 비중은 전체의 30.77%다. 이는 2021년 10월 이후 최저치다. 작년 말 하락 거래 비중이 60%에 육박했던 것과 비교하면 감소세는 더욱 뚜렷하다. 반면 상승 거래는 큰 폭으로 뛰었다. 같은 기간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중 직전 거래보다 1% 이상 상승한 거래 비중은 52.90%로, 2021년 10월 이후 최고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내년까지는 현수준의 완만한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올해 7월까지 11%가량 집값이 오르는 급반등 장세가 나온 점을 볼 때 관성의 법칙이 적용돼 좀 더 오를 것"이라며 "최근 매수세가 다소 둔화됐지만 현 추세라면 연말까지 13~15% 정도는 반등할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분양가가 오르면 인근 시세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집값이 오른다는 기대 심리가 있으면 매도인들이 호가를 낮추지 않으려 하는 만큼 거래량은 보합이어서 가격은 높은 수준으로 팔려는 흐름이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약 시장의 열기도 계속될 것이라는데 무게가 실린다. 입지, 가격에 따른 차등 양상은 보이겠지만 '내 집 마련'을 위한 높은 경쟁률은 지속될 것이라는 진단이다.   
한진리 기자 truth@

여전한 '집값 비관론'

# 매물은 줄었다... "집값 상승 어려울 것"

대출금리 오르며 거래절벽 이어져 고물가 지속 땀 상승동력 잃을 것

청약시장과 달리 기존 주택 시장은 당분간 활기를 찾기 어려울 것이라 관측이 나온다. 급매물이 소진된 후 매도자와 매수자 간 눈치싸움이 치열한 데다 대출금리까지 치솟으면서 매매 거래가 얼어붙을 수 있다는 시각이다. 거래가 잠잠하면 가격 상승 동력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

1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주택매매 거래량은 올해 3월부터 5만 건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 월 거래가 3만~4만 건 안팎으로 쪼그라들었던 작년 말과 올해 초보다 많이 늘었지만, 예년과 비교하면 크게 모자란 수치다.

2013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10여 년간 월평균 주택 매매 건수는 7만9403건이다. 최근의 거래량이 평균의 65% 수준밖에 안 되는 것이다.

올해 8월까지 누적 기준으로 봐도 마찬가지다. 올해 1~8월 주택 매매는 37만4356건으로 같은 기간 앞선 10년 평균(2013~2022년) 62만6861건보다 40.3% 적다.

부동산 시장에서 집을 팔려는 사람은 많지만, 매수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매물은 계속 쌓이고 있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아실의 집계를 보면

현재 전국의 아파트 매물은 50만670건(15일 기준)으로 작년 말보다 28.6% 증가했다.

모든 지역에서 매물이 많아졌다. 서울이 5만여 건에서 7만5423건으로 48.8% 늘면서 증가 폭이 가장 컸다. 관련 수치가 집계된 이후 최대 수준이다. 세종(44.6%), 광주(41.6%), 경남(34.7%), 제주(29.3%), 경기(27.6%) 등도 매물이 대폭 늘었다. 증가 폭이 가장 적은 충북(15.1%)도 두 자릿수였다.

급매물 소진 후 집값 오름세가 나타나

면서 매수자와 매도자 간 가격에 대한 시각차가 원인으로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집값 상승을 낙관하기 힘든 것도 이유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부동산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면 집주인은 매매 시점을 미루고 수요자들은 '영끌'을 해서라도 집을 살 것"이라며 "집값이 오르더라도 그 폭이 작거나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더 강하기 때문에 팔려는 사람은 많지만 사는 사람은 적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택 매매는 대출금리 상승세로 더욱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권대중 서강대 교수는 "미국의 금리 인하가 없으면 우리도 금리를 내리기 어렵고 이스라엘-하마스 분쟁으로 유가도 올라갈 게 확실하다"며 "고금리,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면 부동산 시장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상단은 7%를 돌파했고 주담대 고정금리는 하단이 5%대다. 대출금리는 앞으로도 오를 수 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전보규 기자 jbk@   
한진리 기자 truth@



## 목동 한가운데 찾아온 그리너리 공간, 보타닉 하우스

현대백화점 목동점 본관 7층

보타닉 하우스는 현대백화점 목동점이 새롭게 선보이는 식물 공간입니다. 800여 평의 탁 트인 공간에서 정원과 햇살, 파리에서 온 최상급 스페셜티 커피 로스터리 **메르 드 카페**와 함께 일상 속 작은 썬표를 만드세요.



지금 둘러보기

# “연체 불이익”도 모르는 청년들… 결국 신불자 나락에

## 금융 문맹률 낮추자 ①

20대 금융이해력, 노인 다음 낮고 대출 연체 알려도 경각심 없어 불법사채 피해자 57% 20·30대

#대학입학과 동시에 학자금 대출을 신청한 정수지(19) 씨는 본인의 학자금 대출 상환 스케줄을 알지 못했다. 학자금 대출을 위해 필수로 들어야 하는 한국장학재단 동영상 강의를 스킵(건너뛰기)해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서다. 정 씨는 졸업 후 취업했지만 쪼잔리만 한 월급에서 학자금 대출 이자가 빠져나가는 것을 보며 한숨만 늘었다. 결국, 결혼과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은커녕, 이자와 원금을 갚아야 하는 빚의 굴레에 빠져 있다.

정 씨처럼 많은 사람이 대학교를 입학하면서 학자금 대출을 통해 생애 최초의 대출을 경험한다. 신용과 연관된 중대한 의사결정을 이때 시작하게 되는 셈이다. 문제는 초·중·고등학교를 거치는 동안 금융 관련 교육이 사실상 없다 보니 금융거래를 하는데 있어서 이해력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대다수 청년은 본인 신용평점에 대한 관심도, 대출을 받을 때 금리와 상환 방식에 관한 내용도 제대로 모른 채 금융거래를 해야만 했다. 신용카드를 무작정 만들었지만, 한도를 늘리는 방법도 제대로 알지 못했고, 연체하면 금융권에 연체정보가 공유돼 불이익을 받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었다. 이런 금융교육에 대한 무지는 결국 청년층의 피해로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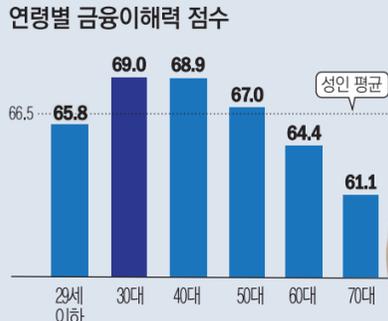
미국 등 금융 선진국들은 공교육에서 금융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입시 위주 교육에 매달릴 뿐 경제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금융 교육은 뒷전이다. 금융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금융이해력 수준은 개선되고 있지만, 정보의 격차로 인한 부작용도 크다. 세대간, 계층별 금융지식 편차가 커지고 있는 게 그중 하나다.

2022년 전 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단위: 점)

성인 금융이해력 점수	
한국	66.5
OECD 10개국 평균	66.2

금융이해력 부문별 점수	
금융지식 (금융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75.5
금융행위 (재무 계획, 예산 관리 등의 활동)	65.8
금융태도 (저축, 미래, 소비에 대한 바른 가치관)	52.4



줄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저소득층일수록 금융교육 사각지대에 있다는 점에서 맞춤형 금융교육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실제 미국, 영국 등 해외 선진국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회성 교육의 한계점을 인식하고 학교 정규 교과목으로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미국은 각 주소관인 교육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연방 차원의 학교 금융교육을 강화했다. 2018년 기준으로 22개 주에서 고등학생에게 졸업 필수 과목으로 경제수업을 이수하도록 했다.

영국은 2014년 이후 경제·금융교육을 중등교육기관의 교육과정에 금융교육을 포함했다. 이와 함께 수학 교과목의 상당 부분을 △화폐 기능과 사용 △개인 예산 세우기 △투자위험 알기 등 생활에서 응용할 수 있는 금융 관련 내용으로 바꿨다. 호주도 2008년부터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금융을 의무적으로 가르치도록 결정했다.

김범근 기자 nova@

◇금융 양극화 심화, 디지털금융 이해력도 수준 미달 =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올해 3월 발표한 ‘2022 전 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평균 점수는 2년 전 대비 1.4점 오른 66.5점으로 집계됐다. 이 조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2년마다 시행된다. 우리나라는 OECD 10개국 평균(62점)을 넘었지만, 연령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금융이해력 수준을 살펴보면 청년층(18~29세, 64.7점)과 노년층(60~79세, 62.4점)은 전체 평균보다 낮았다.

특히 청년층은 회사에 입사하기 전까지 금융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떨어졌다. 주식투자 열풍 속에 제대로 된 교육 없이 투자에 나선 청년들은 순식간에 빚더미에 앉았다. 빚을 내 집을 사거나 주식과 코인에 투자했다. 금융에 대한 이해도 없이 불법사금융에 손을 내미는 청년들도 많았다.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불법사채 피해자 중 절반이 넘는 56.8%가 2030세대였다.

학력과 소득에 따른 양극화도 심각한 수준이다.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 68.7점, 고졸 65.4점, 고졸 미만 59.3점이다. 소득별로는 연소득 7000만 원 이상 68.7점, 3000만~7000만 원 68.0점, 3000만 원 미만 63.2점이다.

디지털 금융이해력도 낙제 수준이다. 점수는 42.9점으로 평균(66.5점)을 한

참 밑돌았다. 30대(45.0점) 등 젊은 층은 비교적 높게 나왔으나 70대(36.0점), 저소득층(39.4점), 고졸 미만(35.9점) 등은 낮았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학력과 소득에 따른 금융지식 격차가 컸다”며 “금융취약계층인 고령층의 경우 디지털금융 기술이 갈수록 버거워지고 복잡해지면서 아예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결국 금융교육이 ‘답’ = 금융지식 양극화를 바로잡기 위한 해결책은 초·중·고등학교 등에서의 금융교육 의무화다. 2025년부터 고등학교 선택 과목으로 금융 과목을 들을 수 있다. 하지만, 입시 위주의 교육을 받는 청소년들이 금융 과목을 선택할지 미지수다.

학교나 직장에서 금융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진다면 금융사고로 인한 손실을

## Clean & Smart Energy Leader KOEN

new renewable energy

자연과 함께 에너지를 만들고  
인류와 환경을 생각하는 **KOEN**  
대한민국 에너지의 새 지평을 열며  
First Mover로 나아갑니다.

자연과 인류를 위한 과감한 행보는  
대한민국 에너지의 대표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KOEN**의 Clean & Smart Leader 정신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탐라해상풍력 전경

Clean & Smart Energy Leader!  
**KOEN** 한국남동발전

## 초등 금융과목 신설 ‘국회 표류’

### 필요성 공감에도 비용·교사 고민

세계 각국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교육에 공을 들이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금융교육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의 필요성을 많은 이들이 공감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로 법 제정을 위한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국회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위원회 소속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월 금융교육이 학교에서부터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교육진흥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이 법안은 청년들이 변종대출로 인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거나 은퇴세대들이 주식 투자에 실패해 노후자금을 잃고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등의 문제가 금융교육의 부재로 인한 것이라는 데서 시작됐다. 금융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장밋빛 기대만으로 접근하거나 경제적인

제를 단기에 해결하기 위해 금융투자를 무리하게 한 결과라는 것이다.

핵심은 초등학교부터 금융교육의 의무화다.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여전히 사회초년생 시절부터 각종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등 피해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조기 금융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도 많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교육 필요성은 모두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금융 공교육을 실시하더라도 전문성 있는 교사를 찾는 것부터 가난제인 데다 비용 문제, 교육 프로그램 구축까지 산적한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교과 과정에 금융교육을 신설하는 것도 중요하나, 그보다 국·영·수 등 기초영역에 금융과 관련된 내용이 녹아들게 해 아이들에게 돈과 경제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영 기자 lry0403@

# 대리전 불안 커지는 '아·팔戰'... 세계경제 '혼돈 속으로'

“전쟁·학살 중단 안 하면 개입”이란, 이스라엘에 ‘선전포고’ 중동전쟁으로 확산 위험 커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전쟁이 이스라엘과 이란의 대리전 양상으로 변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에서의 지상군 전면 투입을 예고했고, 이란은 이스라엘이 전쟁을 멈추지 않으면 개입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번 전쟁이 대리전으로 확산하면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불안감도 고조되고 있다.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근거지인 가자 지구를 전면 침공할 준비를 하고 있다. 지난주 가자지구 주민 절반에 해당하는 110만 명에게 대피령을 내리고 첫 번째 소규모 지상군 진입을 감행한 이스라엘은 조만간 지구 내 가자시대를 공격하겠다고 선포했다.

반면 하마스를 지원해 온 이란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의 군사작전을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개입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유엔본부 이란대표부는 “이스라엘의 전쟁범죄와 집단학살이 즉각 중단되지 않으면 상황은 견잡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하고 광범위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마스가 지원하는 레바논과 시리아

	제한적 전쟁	대리전	직접적 전쟁
세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자지구 지상전</li> <li>내전이 팔레스타인 영토 밖 확산되지 않음</li> <li>이란 원유 생산 적어지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자, 서안지구, 레바논, 시리아 등서 동시 다발적 전쟁</li> <li>중동 전반 불안 확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스라엘과 이란 직접적 충돌</li> <li>중동 전반 불안 확산</li> </ul>
유가·美공포지수(VIX)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가: 배럴당 4달러 올라</li> <li>VIX: 변동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가: 배럴당 8달러 올라</li> <li>VIX: 8포인트 상승</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가: 배럴당 64달러 올라</li> <li>VIX: 16포인트 상승</li> </ul>
세계 GDP 성장률·인플레이션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GDP: 0.1%p ↓</li> <li>인플레이션: +0.1%p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GDP: 0.3%p ↓</li> <li>인플레이션: +0.2%p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GDP: 1.0%p ↓</li> <li>인플레이션: +1.2%p ↑</li> </ul>



최악 경우 세계성장률 1%p 하락 유가 배럴당 150달러로 급등할 것 글로벌 경제·정치 전반에 악영향

렸던 2009년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충격을 받았던 2020년을 제외하면 30년 만에 가장 약한 성장세다. 현재 이집트와 레바논, 튀니지 등이 이미 경기침체에 빠진 것을 고려하면 2010년대 초반 각국 정권을 무너뜨린 ‘아랍의 봄’이 반복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블룸버그는 짚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대리전으로 끝나지 않는 것이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직접 충돌하면 경제적 불확실성은 훨씬 커진다. 가능성은 낮지만 실현될 시 유가는 배럴당 150달러까지 뛰고 경기침체로 인해 세계 GDP는 약 1조 달러(약 1355조 원) 줄어들 수 있다. 특히 이 경우엔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들마저 긴장감에 휩싸이면서 변동성은 더 커질 수 있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의 하산알하산 연구원은 “이 지역의 누구도, 심지어 이란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전면적인 지역 전쟁으로 확대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그렇다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건 아니다. 감정이 격해지면 오판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말했다.

고대명 기자 kodae0@

민병대가 전투에 참여할 것이라는 불안도 고조되고 있다. 지난주 이스라엘은 시리아와 레바논에서 로켓과 대전차 유도 미사일 공격이 날아왔다고 발표했다. 하마스와 레바논 무장단체 헤즈볼라는 자신들의 소행임을 인정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대리전으로 전환될 수 있고 전 세계 경제에도 큰 충격을 줄 수 있다. 중동은 세계적인 에너지 공급지이자 주요 운송 통로이기 때문이다. 1973년 아랍-이스라엘 전쟁 발발 후 석유 금수 조치가 시행되고 세계 경제가 수년간 스태그플레이션을 겪었던 것이 대표적인 예다. 역사적으로 중동 전쟁은 다른 지역에서의 전쟁보다 인명 피해는 적었는지 몰라도 세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제한적이지 않았다.

블룸버그이코노믹스는 이번 전쟁이 세계에 미칠 영향을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로 나눠 조명했다.

우선 전쟁이 가자지구 지상전에 국한되면 국제유가는 배럴당 4달러 상승하고 미국 공포지수인 ‘변동성지수(VIX)’는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VIX는 미국과 글로벌 증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표로 통한다. 내년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이전보다 0.1%포인트(p) 하락하고 인플레이션 상승률은 0.1%p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2014년 하마스가 이스라엘인 3명을 납치해 가자지구에서 2000명이 넘는 사망자를 낸 전쟁으로 이어졌을 당시 전쟁은 팔레스타인 영토 밖으로 확산하지 않았고 유가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미

미했다. 지난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회의에서 “현시점에서 큰 경제적 파급 효과의 징후가 보이지 않는다”며 “갈등이 확산하지 않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리전이 치러지면 얘기는 달라진다. 가자와 서안지구, 레바논과 시리아 등지에서 동시다발적인 전쟁이 벌어져 중동 전반에 불안이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 이스라엘 육군 참모총장을 지낸 아이르 골란은 “헤즈볼라가 참전한다면 그 시기는 가자지구 지상전 개시 이후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경우 국제유가는 배럴당 8달러, VIX는 8포인트 각각 오른다. GDP 성장률은 0.3%p 하락해 2.4%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후폭풍에 시달



## ‘무역기술장벽’ 쌓는 주요국 매일 11건씩 규제폭탄 투하

국표원, 3분기 TBT 현황  
美 124건·中 35건·EU 25건 등  
3분기 898건·누적 2951건 달해

세계 무역기술장벽(TBT)이 여전히 높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 매일 약 11건의 기술규제가 이뤄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올해 3분기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가 898건, 누적 기준 2951건을 기록했다고 15일 밝혔다.

2020년 2402건에서 2021년 2979건으로 24% 증가한 이후 매년 3000건가량의 기술규제가 이어지고 있다. 3분기 기술규제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5대 중점국(10대 수출국+5대 신흥국)이 통보한 기술 규제는 총 323건(35.9%)으로 전분기 대비 8.0% 증가했다.

10대 수출국은 중국, 미국, 유럽연합(EU), 베트남, 일본, 대만, 싱가포르, 멕시코, 말레이시아, 호주 등이며 5대

신흥국은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아랍에미리트(UAE), 칠레 등이다. 기술 규제를 가장 많이 통보한 국가는 미국으로 124건이며 그다음으로 중국(35건), EU(25건), 호주(12건), 일본·대만(각 10건), 베트남(6건), 멕시코(4건), 싱가포르(1건) 등의 순이다.

산업별로는 식의약품(25.1%), 화학 세라믹(14.9%), 농수산물(12.6%) 순으로 기술 규제를 통보했다. 이는 2분기와 유사한 비중이다. 세부적으로는 자율주행 등 인공지능(AI) 기술과 사이버보안, 유해 물질 및 폐기물 등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다.

국표원은 기술 혁신과 환경 보호에 관한 관심이 커지면서 각국이 기술 규제를 신설하고 강화하는 등 무역 환경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WTO는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 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절차 등의 기술규제를 제·개정할 경우 TBT 협정에 따라 WTO에 통보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세종=박병림 기자 riby@

## 추경호 “내년 2%대 성장률, 주요국 중韓 유일”

### IMF·WB 연차총회 간담회

“경기 바닥 다지며 회복국면 진입 韓, 반도체 업황 반등 수혜 예상 유가·中 경제 등은 여전히 변수”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을 2.2%로 내린 것을 두고 우려가 나오는 것에 대해 “2%대 초반은 웬만큼 규모 있는 국가에 선 없는 숫자”라고 반박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13일(현지시간)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린 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및 G20재무장관회의 동행기자단 간담회에서 “경기가 바닥을 다지면서 경기가 회복 국면에 진입하기 시작하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일본은 2022년 우리보다 한참 낮게 성장했고 올해는 우리보다 조금 높지만, 내년엔 다시 1%대 성장”이라며 “무역수지도 2년 만에 가장 큰 폭의 흑자로 돌아섰고 대중국 무역적자도 1억 달러 수준에 그치는 등 부진에서 다시 완만하게나마 회복하는 지표가 나오고 있다. 10월, 11월 가면서 조금씩 가시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성장률이 내년엔 2.2%로 나오려면 계속 경기가 우상향으로 가야 한다”며 “IMF가 왜 한국을 긍정적으로 봤을까를 생각해 보면 내년엔 반도체 경기가 전반적으로 좋아지면서 한국이 본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모로코 마라케시를 방문 중인 추경호 부총리가 13일(현지시간) 동행기자단 간담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마라케시공동취재단

격적으로 수혜를 받는다는 뜻”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세계 주요국에서는 미국과 캐나다만 상향됐다”면서 “선진국 성장률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1.4%인데, 한국은 올해 1.4%에서 내년 2.2%”라며 “왜 0.2%포인트(p)를 내렸는 것만 보느냐”고 아쉬워했다. 그러면서 “올해 20년 만에 성장이 일본에 뒤졌다는 데 일본은 2022년 우리보다 한참 낮게 성장했고 올해는 우리보다 조금 높지만, 내년엔 다시 1%대 성장”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 아웃룩 전망을 발표하면서 전반적인 세계 경제가 반도체 정보통신기술(ICT) 경기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다”며 “그 수혜를 한국이 본격적으로 받

을 가능성이 있다. 한국이 경쟁력 있는 분야가 조금 더 내년에 활발하게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경기 부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에너지 폭등 △중국 경제 봉쇄 △반도체 경기 둔화 등 3가지를 꼽았다. 그는 “중국은 리오프닝 효과가 그렇게 빨리 나타나진 않지만 그렇다고 3%대 성장에서 5% 안팎으로 오르면서 침체도 빠르게 회복도 아닌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또 “국제유가는 120달러까지 갔다가 80-90달러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며 “반도체는 3분기 거의 바닥을 다지고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반도체의 경우 4분기나 내년이 되면 점차 더 뚜렷해지고 회복국면에 접어들다는 게 업계 전망이라고 부연했다.

마라케시(모로코)=곽도훈 기자 sogood@

# 국힘, 임명직 당직자 전원 사퇴... '김기현표 쇄신' 힘심기?

## '총선 전초전 패배' 여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패배한 후 국민의힘은 침묵에 빠져있다. 일부 중진 의원들이 '당 대표 책임론'을 묻는 것 외에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은 말을 아끼고 있다. 내년 총선 공천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일단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국민의힘 임명직 당직자 전원이 사퇴했고, 김기현 대표는 이를 수용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패배한 지 사흘 만이다. 김 대표는 주말 사이 후임 인선에 돌입했다.

1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김 대표는 수도권·중원 출신의 의원들에게 주요 당직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 위 기론'이 불거졌던 만큼 이들을 전면에서 세워 당을 쇄신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대다수 의원은 함구하는 분위기다. 내년 총선 공천을 앞두고 보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따져 묻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당내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지금 김기현 대표를 비판하겠나,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겠나. 할 수가 없다"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침묵이 베스트인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마침 '공천 전초전'이라 평가받는 당무감사도 16일부터 2주간 시행된다. 복수의 의원들은 본지에 15일 혁신안을 논의하

'보선 패배' 사흘 만에 총사퇴 김기현 대표, 후임 인선 돌입 2주간 당무감사... 할 일 산적 당내 분위기는 "일단 지켜보자" '2기 지도부' 어떻게 꾸릴지 이목

는 의원총회에서 "일단 김기현 대표의 말을 들어보겠다"며 언급을 피했다.

대통령실도 신중한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선거 결과에서 교훈을 찾아 차분하고 지혜롭게 변화를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여론 관계자는 "대통령실도 당장 대안이 없다"며 "그동안 밀어졌던 김기현 대표를 사퇴시킬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당장 시끄러운 것보다는 시간을 벌기 차원의 수습책이라 보인다"고 했다.

원로들만 김 대표 책임론을 따져 묻고 있다. 5선 서병수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김기현 대표를 신임할지 혹은 불신임할 것인지는 지금부터입으로 내뱉는 한 마디 한 마디에, 보여주는 행동 하나 하나에 달렸다"고 지적했다. 최재형 의원은 14일 "임명직 당직자 사퇴는 국민의 눈높

이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같은 날 "책임져야 할 사람이 물러나지 않고 혼자 남아서 수습하겠다고 우기는 것이 오히려 년센스"라고 했다. 홍문표 의원도 13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책임자가 책임을 안 지고 미봉책으로 가면 원외 의원장들이 연판장을 돌리겠다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밝혔다.

김 대표가 새롭게 구성하는 '2기 지도부'에 여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달렸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당 안팎의 여론은 좋지 않다. 여론 관계자는 "여론의 뒷받침을 못받는 당 대표가 무엇을 할 수 있겠나"라며 "권력이 그 자리를 지켜준다고 유지가 될 수 없다. 내년 1월 즈음 총선이 폭발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오면 그제야 그만두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다른 여론 관계자도 "누가 봐도 파격적인 인사를 앞기지 않는 한 수도권 출신 의원들을 데려왔다고 쇄신으로 보이겠나"라고 말했다.

이난희 기자 nancho0907@



굳은 얼굴로 의총 참석하는 김기현 김기현(가운데)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계파 갈등 '일단 멈춤' '이재명 체제' 굳힌 민주당 '공천 보복' 불씨 여진

최고위원 지명·가결과 징계 계파 갈등 다시 불붙을 수도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서울 강서구 발산역 인근에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지원 유세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여의도 복귀가 임박한 가운데 계파 갈등은 소강 국면에 접어들어 모양새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이어 10·11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승기를 잡으면서 '이재명 체제'는 더욱 공고해졌고, 비명(비이재명)계 입지는 크게 줄어들었다. 이르면 이번 주 복귀할 것으로 점쳐지는 이 대표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전후해 당내 통합에 방점을 찍고 있다. 그는 12일 새벽 보궐선거에서 진교훈 민주당 후보의 당선에 확실해지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 안의 작은 차이를 넘어 단합하고, 갈등과 분열을 넘어 국민의 저력을 하나로 모아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써 갈등 봉합의지를 드러냈다.

9일 진 후보의 선거 유세에서도 이 대표는 "우리 안의 작은 차이를 넘어 서서 부족하고 억울한 것이 있다면 잠시 제쳐두고 저 거대한 장벽을 우리 함께 손잡고 넘어가자"고 말하기도 했다. 연일 가결과 응징 목소리를 내던 당 지도부도 통합으로 방향을 전환한 분위기다. 이 대표 복귀 후에도 당 지도부는 총선 승리를 위한 통합, 단결의 메시지를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계파갈등의 불씨가 완전히 사라졌다고는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대표가 친명(친이재명) 세력과 강성 당원들을 중심으로 비명계에 공천 보복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공천 국면까지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표 복귀 후 당내 통합의 첫 가늠자는 가결과 징계 문제와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로 공석이 된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 지도부 내에서 가결과 징계 목소리를 찾아들었지만, 친명계 원외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 등에서는 가결과 파로 지목된 비명계 의원 5명에 대한 '단호한 징계'를 주장하는 상황이다. 지명직 최고위원의 총정 출신 여성인 박정현 전 대덕구청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총선을 앞둔 만큼 현재 당에서 미진하다고 평가되는 중원·여성 표심 공략을 염두에 뒀을 가능성이 있다. 정영민 기자 oin@

저탄소 친환경 기업    사람중심 가치창출 기업    투명하고 신뢰받는 기업    ESG 경영 선도 기업

# Action for Positive Change

새로운 경험과 가치를 연결하는 혁신적인 금융투자 파트너

교보증권이 함께합니다

2021 한국거래소 코넥스시장 우수B 선정  
2022 KIFCA 최초발간부문 우수상 수상  
2023 KIFCA ESG 부문 우수상 수상

교보증권은 변화하는 세상에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로 고객가치를 향상시키고 보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듭니다.

도전과 성의 + 고객중심 + 청직과 성실

\*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증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주식거래 시 온라인 매매 수수료는 0.1492%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 23호-02637호(2023.07.24 - 2026.07.23)

KYOBO 교보증권

# 재정적자 올 86조 전망... 정부 “건전재정” 호심되나

## 1~8월 나라살림 적자

8월까지 나라살림 적자(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정부가 예상한 연간 전망치를 훌쩍 넘으면서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비상이 걸렸다.

연말까지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80조 원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관측되면서 작년보다 정부가 공언해온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 재정적자 관리’가 올해부터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졌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8월 관리재정수지는 66조 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월(67조9000억 원 적자) 대비 적자

관리재정수지 66조 적자 기록

국제수입 전년대비 47조 줄어

작년 정부 “GDP 3% 내 적자들”

8월 기준 적자 비율 2.9% 이상

2년 연속 관리 실패 예고된 셈

폭이 1조9000억 원 개선됐지만 여전히 올해 연간 전망치(58조2000억 원 적자)를 크게 웃돌고 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뺀 재정수지로 정부의 실질적인 재

정 상태를 보여준다. 8월까지 관리재정적자가 연간 전망치를 뛰어 넘은 것은 국제수입 급감 등에 기인한다. 1~8월 국제수입은 241조6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47조6000억 원 줄었다.

올해 연간 관리재정 적자는 80조 원대를 기록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9월 세수 재추계 발표를 통해 연말 관리재정 적자가 86조 원 정도 될 것으로 잠정 추산했다. 국제수입 결손분(59조1000억 원)과 총지출 축소 요인인 교부세 감소분(23조 원) 및 통상적 예산 불용(2022년 7조9000억 원)이 반영된 결과다.

이대로 관리재정 적자가 연말까지

80조 원을 넘어서면 올해 GDP 전망치(명목 기준·2235조 원)의 재정적자 비율이 3.5% 이상을 기록하게 된다. 8월까지 재정적자 비율은 2.95% 정도다. 지난해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사실상 긴축재정을 뜻하는 건전재정 기조 확립을 위해 올해 예산부터 관리재정적자를 GDP의 3%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정부의 이 같은 약속은 올해부터 깨질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정부는 세수 재추계 발표에서 내년 GDP 대비 관리재정적자 비율이 3.9%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2년 연속 3% 이내 관리 실패가 예고된 셈이다.

문제는 예상보다 관리재정적자 폭이 커지면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재정적자분을 메우기 위한 국채 발행이 늘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8월 말 기준 국가채무는 전월보다 12조1000억 원 늘면서 1100조 원(1110조 원)을 돌파했다.

재정집행 지원 등을 위한 국채 발행(8월 잔액 1108조6000억 원, 전월 대비 +12조 원)이 크게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쳤다. 8월 말 국가채무 역시 정부의 올해 목표치(1101조7000억 원)를 넘어서면서 연말까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연간 예상치(50.4%)를 웃돌 가능성이 커졌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 의대 정원 확대 ‘도마 위’ 증원 규모가 ‘메인디시’

이번 주 정원 조정 규모·일정 발표

의과대학 정원 확대 논의가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 의대 정원 논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과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의 집단행동으로 2020년 잠정 중단됐다가 올해 의료현안 협의체, 보건 의료정책 심의위원회 운영을 계기로 재개됐다. 쟁점은 증원 규모다. 앞서 ‘2025학년도 입시부터 정원을 확대한다’는 방향에는 의·정 간 합의가 이뤄졌다.

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에 의대 정원 조정 규모와 일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의대 정원 조정은 여러 정부를 거치며 손질 되어왔다. 3500명이던 의대 정원은 단계적으로 축소돼 2006년부터 3058명으로 고정됐다. 지방을 중심으로 의사 부족 문제가 심화하자 정부는 2020년 국립의학전문대학원(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확대를 동시 추진했으나, 코로나19 유행기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막혀 계획을 철회했다. 이후 코로나가 잦아들자 의료계와 정부는 2025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확대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관건은 확대 규모다. 2021년 한국의 인구 1000명당 임상 의사(한의사 포함) 수는 2.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3.7명)의 3분의 2 정도다. 의학교육(한의학 포함·치의학 제외) 졸업자도 인구 10만 명당 7.3명으로 OECD 평균(14.0명)의 절반을 겨우 넘었다. 절대적인 의사 공급 부족으로 특정 지역·진료과목에 의료자원이 쏠려도 포화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는 지역별로는 수도권, 진료과목별로는 성형외과, 피부과, 정형외과 쏠림을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다만, 의대 정원이 확대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의대 정원 확대가 필수 의료 분야 의사 공급 확대로 이어지기까지 10년 이상 걸린다. 의대생 6년, 수련의 1년, 전공의 4년 등 전문의 취득에만 11년이 소요되고, 남성은 여기에 군 복무 기간이 추가된다. 결국, 향후 10년간은 현재 자원으로 비수도권, 필수 의료 분야 의사 부족에 대응해야 한다는 의미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 불붙은 유가, 14주 만에 주춤

국내 주유소 휘발유·경유 가격이 14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선 가운데 15일 서울의 한 주유소에서 차량들이 주유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오피넷)에 따르면 10월 둘째 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리터당 7.7원 내린 1788.3원을 나타냈다. 경유 판매가는 1693.3원으로 3.8원 내려갔다.

국내 주유소 휘발유·경유 가격이 14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선 가운데 15일 서울의 한 주유소에서 차량들이 주유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오피넷)에 따르면 10월 둘째 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리터당 7.7원 내린 1788.3원을 나타냈다. 경유 판매가는 1693.3원으로 3.8원 내려갔다. 신태현 기자 holjjak@

## 4분기 제조업 전망 ‘다소 흐림’

산업연구원, 제조업 현황 95 예상  
車·조선·화학·철강 100 미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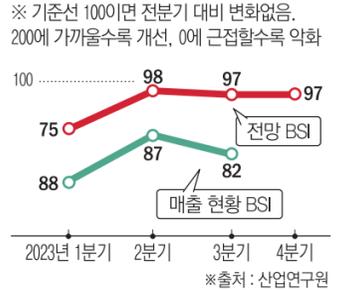
4분기 제조업 상황이 다소 악화할 것이라 전망이 나왔다. 수출과 내수 모두 3분기보다 못할 것이라 예상이다.

산업연구원은 15일 이런 내용의 제조업 경기실사지수(BSI) 조사 결과를(2023년 3분기 현황과 4분기 전망)를 발표했다. BSI는 100을 기준으로 200에 가까울수록 개선, 0에 가까울수록 악화를 의미하며 1500개의 제조업체가 응답했다.

4분기 상황은 95로 나와 3분기 대비 다소 악화할 것으로 예상됐다. 수출과 내수 각각 97, 95를 기록했고 매출도 97에 머물렀다. 이로 인해 경상이익(94)과 자금 사정(90)도 안 좋을 것으로 예상했다.

업종별로 보면 반도체가 92로 가장 낮았고 그 다음으로 섬유 95, 가전 96이 뒤를 이었다. 디스플레이, 일반기계, 화학, 철강은 모두 97에 그쳤고 자동차(98)와 조선(99)도 100에 못 미쳤다. 반면 바이오·헬스

### 국내 제조업 매출 현황 및 전망 BSI



(107), 이차전지(105), 무선통신기기(102), 정유(102)는 기준치를 넘었다. 3분기 상황도 86을 기록해 2분기보다 크게 떨어졌단 응답이다.

내수(81), 수출(87) 모두 80대에 그쳤고 이로 인해 매출(87), 경상이익(83), 자금 사정(81) 등도 좋지 않았다.

업종별론 반도체(72)와 섬유(78)가 70대에 그쳤고 일반기계 81, 철강 82, 화학과 디스플레이 각 84, 가전 85, 바이오·헬스 89등에 머물렀다. 자동차와 조선 각 92, 정유 93, 이차전지 95 등 조사 대상 모두 기준치를 넘지 못했다.

세종=박병립 기자 riby@

## 농진청 “수삼 찌서 말린 ‘흑삼’... 전립선비대증 개선 효과”

특허 등록 후 인체 적용시험 중  
홍삼보다 진세노사이드 함량 많아

우리 흑삼이 전립선비대증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 확인됐다.

농촌진흥청은 15일 흑삼이 전립선비대증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음을 과학적으로 밝혔다. 흑삼은 가공하지 않은 인삼인 수삼을 3회 이상 찌서 말린 것이다. 벌레 말린 백삼이나 홍삼보다 진세노사이드(Rk1·Rg3·Rg5) 함량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립선비대증은 나이가 들수록 전립선의 크기가 커지면서 전립선 안의 요도에 압력을 가해 배뇨 장애 등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우리 몸의 5-알파-환원효소와 반응해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DHT)으로 전환

돼 발생하며, 전립선 조직에서 생성되는 전립선특이항원(PSA) 수치나 초음파 등으로 검사한다.

농진청은 전립선비대증을 유도한 동물 모델에 4주 동안 매일 흑삼을 먹였다. 그 결과 비대증을 유도한 뒤 흑삼을 먹이지 않은 동물 모델과 비교해 전립선의 무게가 최대 16.9% 줄어드는 것을 확인했다.

전립선 조직에서 생성되는 전립선특이항원은 최대 48.6%까지 감소했고, 전립선비대증 유발인자인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도 최대 31.4%까지 줄었다. 의약품인 5-알파-환원효소억제제를 투여했을 때는 전립선특이항원이 약 37.4% 줄고,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은 2% 감소했다.

농진청은 이번 연구로 총 3건의 흑삼 소재화 기술 특허 등록을 마쳤다. 6개 기업에는 기술을 이전해 인체 적용시험을 하



수삼을 찌서 말린 흑삼.

사진제공 농촌진흥청

고 있다. 앞으로 흑삼을 건강기능식품 원료와 천연 의약 소재로 개발하는 연구를 추가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김금숙 농진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특용작물이용과장은 “이번 연구는 인삼 소비 촉진에도 보탬이 될 뿐 아니라 대부분 수입 원료에 의존하는 전립선 건강기능식품 원료시장의 대안이 될 수 있다”며 “흑삼이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빠르게 등록될

수 있도록 인체 적용시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농진청은 올해 3월 정부혁신 과제로 흑삼 제조 온도와 찌는 횟수, 시간 등을 표준화해 ‘인삼산업법 시행규칙’에 추가했고, 흑삼 품질관리를 위한 성분 기준을 설정했다. 이와 함께 흑삼이 호흡기 건강을 개선하는 기능이 있음을 밝히기도 했다.

세종=이해근 기자 pinvol1973@



WAVE

더 나은 지구와 인류의 미래를 위한 행동  
World EXPO 2030 BUSAN의 시작!  
[www.thewave.net](http://www.thewave.net)



# 우리가 그리는 2030부산엑스포는 어떤 모습일까요?

2030부산엑스포를 통해  
기후변화, 양극화와 같은  
인류가 마주한 문제를  
대한민국이 주도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모두가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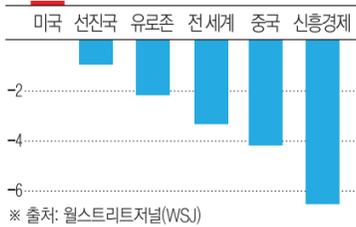
SK도  
2030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 美 나홀로 성장에... 글로벌 경제 '경착륙' 위험 고조

미국 성장률 전망치 1.8→2.1%  
긴축 장기화로 달러 가치 뛰면서  
신흥국 고물가에 부채 상환 부담  
세계무역증가율 5.1%→0.9%

IMF 팬데믹 이전과 올해 성장률  
전망치 비교(단위: %)



미국 경제에 대한 낙관론이 커지고 있지만, 이로 인해 세계 다른 나라 경제는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이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연착륙으로 향하면서 장기간에 걸친 긴축 기조 유지가 예상되는 가운데 달러도 강세를 보이면서 다른 나라들의 경제성장률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1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전쟁, 세계적인 고금리 상황, 유가 상승으로 세계 경제가 가뜩이나 취약한 가운데 미국의 '나홀로 질주' 가리스크를 더하고 있다고 WSJ는 지적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주 세계경

제전망 업데이트에서 미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1.8%에서 2.1%로 상향 조정하고 내년은 1.5%로 제시하면서 "우리가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미국 경제 연착륙이 더 일르게 일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반면 세계 나머지 국가들에 대한 전망은 암울하다. 중국 경제는 부동산시장 침체와 수출 부진, 소비자 수요 약화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 중국 의존도가 높은 독일 경제는 올해 선진국 중 유일하게 역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유럽 전반의 경제 전망도 약해지고 있다.

IMF는 올해 전 세계 무역증가율이 0.9%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는 지난해의 5.1% 증가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다.

미국만 홀로 견실하게 성장하면서 글로벌 경제는 달러 강세와 유가 상승에 따른 추가 인플레이션 위험에 직면했다고 WSJ는 경종을 울렸다. 달러 가치가 오르면 세계 각국이 해외 상품을 수입하는데 더 큰 비용이 든다.

레세트야칸야고 남아프리카공화국 중앙은행 총재는 "우리는 기준금리를 현재의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에 만족할 수 없다"며 "인플레이션 상황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완고해서 금리를 계속 높일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미국 달러 당 남아공 랜드화 가치는 최근 몇 달간 6% 하락했다.

남아공처럼 달러 강세에 따른 자국 수입물가 상승으로 많은 신흥국이 인플레이

션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일부 중앙은행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를 더 올려서라도 인플레이션을 신속히 잡기를 원하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전문가들은 개발도상국 전역에 새로운 부채 위기가 닥칠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달러 강세로 인해 이미 신흥국들은 달러 표시 부채 상환에 더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

기후변화에 대한 세계적 대응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IMF는 "저소득 국가의 약 60%가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태에 있거나 그런 위기에 빠질 수 있다"며 "그만큼 이들 국가가 기후변화 프로젝트에 대응할 여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고대영 기자 kodae0@



뉴질랜드 '우파' 정부로 6년 만의 교체  
뉴질랜드 국민당의 크리스토퍼 럭슨(오른쪽) 대표가 14일(현지시간) 치러진 총선에서 승리 확정 후 오클랜드에서 지지자들과 기쁨을 나누고 있다. 보수 성향의 국민당은 약 40%를 득표해 1위를 차지했으며 같은 우파인 액트(ACT)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할 예정이다. 이에 뉴질랜드는 노동당에서 국민당 주도 우파 정부로 6년 만의 정권 교체가 이뤄지게 된다.  
오클랜드(뉴질랜드)/신화연합뉴스

## "주요은행 자산 3분의 1 위험할 수도"

IMF, 900곳 '스트레스 테스트'  
29개국 스태그플레이션 시나리오  
손실흡수능력 '기준 이하' 기관 36%  
신흥국은 54%...중국이 가장 취약

CET1 비율은 기본 시나리오에서 12.6%, 부정 시나리오에서 10.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부정 시나리오에서 중국 비율의 하락 폭은 3.9%포인트(p)로 가장 컸고, 유로존(유로화 사용 20개국)과 미국은 각각 3.4%p, 1.6%p로 나타났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세계 경제에 스태그플레이션(물가 상승 속 경기침체)이 오면 주요은행 자산 3분의 1가량이 위험해질 것으로 분석했다. IMF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14일(현지시간) IMF는 공식 웹사이트에 글로벌 금융안정보고서(GFSR)를 게재해 29개국 900개 이상의 대출기관을 상대로 시행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공개했다.

'세계 경제가 2% 역성장하는 등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했다'는 부정적인 시나리오에서 보통주자본비율(CET1)이 규제 기준인 7% 아래로 떨어지는 곳은 전 세계 36%에 달했다. 선진국 기관의 경우 27% 수준이었지만, 신흥국은 54%로 과반을 기록했다. CET1은 위험가중자산 대비 보통주 자본이 얼마나 되는지를 가리키는 지표로 위기 상황에서 은행들의 손실흡수능력을 나타낸다.

2022~2025년 전 세계 은행의 최저

IMF는 "3월 은행 위기로부터 교훈을 얻기 위해 강화한 스트레스 테스트는 선진국의 많은 은행이 증권 평가손실과 대출손실 충당금으로 인해 상당한 자본 손실 가능성이 있음을 밝혀냈다"고 총평했다. 이 같은 이유로 IMF는 지난주 세계경제전망 수정 보고서에서 세계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3.5%에서 올해 3.0%, 내년 2.9%로 각각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GFSR를 작성한 토비아스 아드리안 IMF 통화자본시장 책임자는 "인플레이션 상승은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더 오랫동안 높게 유지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며 "이러한 금리 환경은 더 많은 차입자를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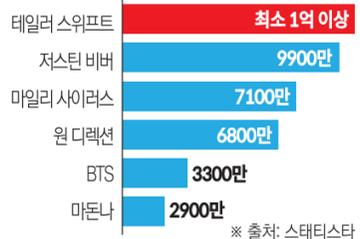
나아가 "정부가 은행을 적극적으로 감독할 필요가 있고 감독관들은 더 개입해야 한다"며 "대출기관들은 더 시기적절하고 결정적인 시장 조치를 해야 하고, 자본 수준을 높여 은행 회복력을 향상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고대영 기자 kodae0@

## 스위프트, 여성 경제 상징으로 부상

콘서트 영화도 흥행 돌풍  
개봉 첫 주말 북미 2000억원 수익  
올해 최고 데뷔작 '바비' 넘을수도

콘서트 영화 역대 흥행 순위  
(단위: 달러)



미국 유명 팝가수 테일러 스위프트가 콘서트에서 영화까지 흥행 돌풍을 일으키며 '여성 경제(Female Economy)'의 상징으로 떠오르고 있다.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스위프트의 콘서트 실황을 담은 영화 '테일러 스위프트: 디 에라스 투어'는 개봉 첫 주말 북미에서만 1억4500만 달러(약 1965억 원)의 박스오피스 수입을 올렸을 것으로 추정된다. 개봉일이 하루 앞당겨질 정도로 수요가 강한 상황이라 영화 '바비'를 제치고 올해 미국 최대 데뷔작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워너브러더스의 역대 최고 흥행작인 바비는 개봉 첫 주말 1억6200만 달러를 벌어들였다.

여성 경제는 패션과 음악,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여성이 발휘하는 경제력과 영향력을 의미한다. 그동안 할리우드가 슈퍼히어로·공상과학(SF) 장르 팬인 젊은 남성을 주 고객층으로

여겨왔던 만큼, 올해 극장이 부활을 이끈 테일러 스위프트와 바비는 여성 경제의 힘을 상징하고 있다.

스위프트는 역대 콘서트 영화 흥행 순위에서도 1위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전 최고 기록은 2011년 개봉한 저스틴 비버의 '네버 세이 네버'로, 개봉 첫 주말 2950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다.

블룸버그이코노믹스에 따르면 스위프트의 팬들은 콘서트를 보기 위해 티켓과 숙박, 항공권, 식비를 포함해 평균 1500달러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스위프트와 비욘세가 3분기 미국에서 콘서트를 진행하며 창출한 금액이 54억 달러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정했다.

전아현 기자 cahyun@



미국의 유명 팝가수 테일러 스위프트가 11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 AMC 극장에서 열린 '테일러 스위프트: 디 에라스 투어' 시사회에 참석하고 있다.  
로스앤젤레스(미국)/AP뉴스

## 美 은행 대출 둔화... 2년 만에 가장 적게 늘어

긴축 장기화 영향에 미국 은행들의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대출이 급격히 둔화하고 있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4일 보도했다.

미국연방준비제도(Fed·연준)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 상위 25개 은행의 대출잔액은 3분기 6조7500억 달러(약 9146조 원)로 나타나 전년 동기 대비 2% 증가하는데 그쳤다. 대출 잔액은 2021년 4분기 이후 8분기 연속 증가했지만, 증가율은 2년 만에 가장 낮았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연준이 지난해 초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하면서 은행들의 대출 금리도 같이 올랐다. JP모건체이스의 경우 2년 전 연평균 4%대였던 대출 금리가 올해 3분기 연 6.8%까지 상승

했다. 찰스 슈프링 웰스파고 최고경영자(CEO)는 "고금리와 경기둔화로 대출 수요가 위축됐다"고 말했다.

예대차확대로 은행들의 수익성은 개선됐지만, 기업이나 개인의 고금리 부담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스탠더앤드푸어스(S&P) 글로벌마켓인텔리전스에 따르면 3분기 미국 기업의 파산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2배 늘어난 182건으로 집계됐다. JP모건과 웰스파고, 씨티그룹 등 미국 3대 은행의 3분기 대손충당금은 전년 동기 대비 두 배 늘었다.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CEO는 "은행들이 지난 수십 년 중 가장 위험한 시기에 있는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전아현 기자 cahyun@

# 노동전문가→직업 전도사... 이병균 “잡월드는 꿈나무 산실”

## ‘누적방문 750만명’ 한국잡월드 사령탑

어린이·청소년 이어 청년 미래 직업 탐색 체험 통해 적성 파악... 청소년 97% 만족 “직업관 확립 미래세대, 국가경제 역군될 것 전 세대 이용·지자체 진로교육 사업 유치”

“모든 일의 최우선 순위는 고객 만족·고객 감동입니다. 어린이, 청소년, 교사, 부모님 등이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 청취하고 연구해 ‘또 가고 싶은 한국잡월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국내 최대 직업체험관 운영 공공기관(고용노동부 산하)인 한국잡월드 사령탑을 맡은 지 2개월 반 된 이병균 이사장은 분주한 하루를 보내고 있다. 미래세대인 어린이, 청소년 등에게 긍정적인 직업관을 심어줘 향후 우리 경제를 이끌 역군이 되는데 이바지하는 기관이 되기 위해선 이사장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해서다.

한국노총 사무총장과 최저임금심의위원회 근로자위원, 노사발전재단 이사 등을 지낸 노동 분야 전문가라는 이력 덕에 한국잡월드 이사장에 발탁된 그로서는 어깨가 무거운 수밖에 없다.

이 이사장은 15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올해 7월말 취임부터 이용객이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차장 운영은 원활한지, 체험관 온도는 적절한지 등 현장을 살피는 것으로 일과를 시작하고 있다”며 “출근 복장도 정장과 구두에서 간편복과 운동화로 바꿨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으로 나가 학교 선생님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잡월드에 대한 학생과 학교가 바라는 점, 학교 운영과 잡월드 체험을 가장 잘 연계할 방안 등을 청취하고 실질적인 방안 도출에 힘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잡월드 누적 방문객 1000만 명 돌파를 위한 행보다. 한국잡월드는 2012년 개관한 이후 올해 9월 기준 누적 방문객 수 720만 명을 넘어섰

다. 한국잡월드는 어린이, 청소년, 나아가 청년들의 미래 직업을 탐색해 볼 수 있는 체험관과 놀이 형태로 개발된 적성·흥미검사를 할 수 있는 진로 설계관, 첨단기술부터 전통기술까지 10가지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숙련기술체험관, 모든 연령이 진로체험을 할 수 있는 메이커스페이스 공간인 메카이브를 제공하고 있다.

방문객 증가 비결에 대해 이 이사장은 “2016년 자유학기제 전면시행 전후로 지자체와 민간 분야에서 운영하는 직업체험관이 늘어나면서 잡월드는 이들 기관과 경쟁에서 이겨야 하는 상황을 맞았다”며 “이를 헤쳐나가기 위해 매년 직업체험 내용을 새롭게 바꾸는 것은 물론 2017년 미래직업 랩(Lab), 2020년 숙련기술체험관, 2022년 메카이브 개관 등 세상에 없던 체험 콘텐츠로 이용객을 맞이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숙련기술체험관의 경우 이용 청소년의 97%가 체험 내용에 만족했으며, 93%가 진로탐색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며 “숙련기술체험관은 균형있는 국가인재 양성이란 잡월드의 설립취지를 수행하는 또 다른 해답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이사장은 미래세대인 어린이, 청소년의 직업체험 중요성도 피력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직업과 노동시장이 얼마나 급격히 변화하는지는 실감해왔다”며 “그런 점에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미래 직업체험은 매우 중요하고 소중한 경험”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잡월드의 진로설계관 체험을 통해 자

신의 재능과 적성을 자세히 파악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건전한 미래 직업관을 확립할 수 있다”며 “특히 이에 맞는 직업 체험활동을 통해 자신의 미래 직업에 대한 보다 강한 확신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미래세대가 건전한 직업관을 형성하게 된다면 이는 청년 실업 감소와 함께 인적자원의 효율성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게 이 이사장의 생각이다.

현재 한국잡월드에서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소개했다. 이 이사장은 “청년들의 직업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드론 교육장 운영을 성남시와 함께 준비하고 있다”며 “교육 수료 시 드론 자격증이 제공돼 청년들로서는 드론 부사관 등 각종 기관의 드론 활용 직업군 진출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한국잡월드가 어린이·청소년의 체험관에서 벗어나 다양한 시대적 변화 요구에 모든 연령층이 즐기는 공간으로 거듭 태어나도록 혁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잡월드는 또 안정적인 이용객 확보와 교육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자체 진로교육 사업을 유치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 사업은 많은 학교에서 지자체의 진로 교육 예산을 지원받아 교내 학생들이 한국잡월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이 이사장은 “현재까지 구리시, 성남시, 인천시, 서울중구청, 제주도 등 총 6개 지자체와 진로교육 협약을 체결했다”며 “더 많은 지역의 학교가 지자체의 도움을 받아 진로 탐색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발 벗고 나서겠다”고 말했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 이병균 한국잡월드 이사장 프로필

학력 사항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수상	2005년 은탑 산업훈장
경력 사항	제5대 한국잡월드 이사장(현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상무위원 최저임금심의위원회 근로자위원 노사발전재단 이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상임부위원장 중앙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



한국잡월드 청소년 체험실 '빅데이터랩'에서 학생들이 데이터 추출 활동과 분석 보고서 작성 체험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한국잡월드

## 50+세대 고품격 매거진 **브라보 마이 라이프** 10월호 발매



### BRAVO SPECIAL 낙오와 생존 사이, 중년의 고립

- PART 1. 고독과 고립 사이, 중장년 손 내밀 곳 어디?
- PART 2. “한국도 남의 일 아냐” 은둔형 외톨이 현상
- PART 3. “함께 끼니 해결하니 진짜 식구 같아요”
- PART 4. 고립 탈출 어떻게 “열등감 잊고 사람 마주하길”
- PART 5. 은퇴 후 관계 절벽 피하려면 “자기 존중감이 핵심”
- PART 6. 메타버스에서 시까지 외로움 달래주는 첨단기술



### BRAVO INTERVIEW



가수 겸 배우 이지훈 “무대서 관객과 호흡 원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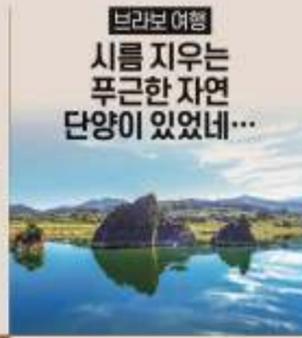


이용재 한글 디자이너 한글을 그리며 찾은 인생의 밑그림



레시피 꽃게무침과 해물무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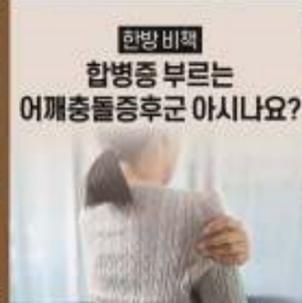
법률가이드 상속세 부담 줄이는 공제 전략은?



브라보 여행 시름 지우는 푸근한 자연 단양이 있었네...



귀농귀촌 예술의 피 나눠 가진 자매 손으로 일군 농장



하방비책 합병증 부르는 어깨충돌증후군 아시나요?



지역 문화유산 순례기 아, 남강과 함께 흘러온 유독 선연한 역사라니...

# 역대 최대 '서울 ADEX'... 최강 F-22·국산 KF-21 출격

## 17일부터 항공우주·방산전시회

세계 최강의 전투기로 불리는 F-22 랩터(Raptor)가 국내 최대 항공우주·방산 분야 무역 전시회 개최를 기념해 한반도를 찾는다. 우리 기술로 만든 최초의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Boramae)도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한다.

국내 최대 항공우주·방산분야 무역 전시회인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서울 ADEX)'가 17일부터 22일까지 6일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개최된다.

서울 ADEX는 국내 항공우주·방위산업 제품의 수출 기회 확대와 선진 해외업체와 기술교류를 위한 행사다. 1996년 서울 에어쇼로 출발해 2009년부터 지상 방산 분야까지 통합해 흡수년 10월에 격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서 6일간 35개국·550개 업체 대거 참가 K·방산 수출·기술교류의 장 일반에 첫선 KF-21 시험비행

으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역대 최대 규모로 35개국, 550개 업체가 참가한다.

17~20일까지 나흘간은 항공우주·방위산업 종사자들을 위한 '비즈니스 데이'며, 21~22일 이틀간은 일반인이 입장 가능한 '퍼블릭 데이'로 구성된다.

특히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미국 공군의 주요 항공 전력인 스텔스전투기 F-22와 전자전기 EA-18 그라울러(Growler), 무인공격기 MQ-1C 그레이이글(Gray Eagle)이 전시된다.



올해 5월 첫 비행에 성공한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의 시제5호기. 사진제공 방위사업청

F-22는 방공망이 취약한 북한에 가장 위협적인 미군의 핵심 항공자산이다. F-22는 스텔스 성능이 뛰어나고 최고속력도 마하 2.5(시속 3064km)를 넘어 적 방공망을 뚫고 은밀하게 침투해 핵심 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다. 항속거리가 3219

km, 작전반경은 2177km다.

특히 국산 전투기인 KF-21의 시험비행이 주목된다. KF-21의 일반 공개는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지난달 26일 국군의 날 기념 시가행진에서 선보이려 했으나 우천으로 시제가 확보되지 않아 공개하지

못했다.

KF-21은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주관하고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가 2016년부터 공동 개발 중인 전투기다. 제원은 폭 11.2m, 길이 16.9m, 높이 4.7m로 최대 속도는 마하 1.81, 항속거리가 2900km다. 공대지·공대공 미사일 등 무장을 최대 7.7톤(t)까지 탑재할 수 있다.

이종호 서울 ADEX 공동운영본부장은 "세계 3대 에어쇼로 도약하기 위해 해외 군 수뇌부와 고위 관료, 바이어 등 전문 관람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일반 관람객의 편의 제고와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민간과 군이 공동으로 개발하거나 관련 기술을 공유할 기회를 제공해 국정 과제인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미래산업 성장기를 마련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동욱 기자 toto@



## 화면 접는 노트북 'LG 그램 폴드' 체험존

LG전자가 내달 26일까지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 소재 이색경험공간 '금성전파사 새로고침센터'에서 폴더블 노트북 'LG 그램 폴드' 체험 공간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LG 그램 폴드는 백라이트가 필요 없어 얇고 구부리기 쉬운 올레드(OLED)의 강점을 활용해 노트북·태블릿·전자책·폴드 형태 등 다양하게 변하고 제품별 최적의 사용자환경·경험(U·UX)을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LG전자 모델들이 LG 그램 폴드를 체험하고 있다.

LG전자가 내달 26일까지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 소재 이색경험공간 '금성전파사 새로고침센터'에서 폴더블 노트북 'LG 그램 폴드' 체험 공간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LG 그램 폴드는 백라이트가 필요 없어 얇고 구부리기 쉬운 올레드(OLED)의 강점을 활용해 노트북·태블릿·전자책·폴드 형태 등 다양하게 변하고 제품별 최적의 사용자환경·경험(U·UX)을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LG전자 모델들이 LG 그램 폴드를 체험하고 있다.

## SK하이닉스 "CXL 기반 메모리 세상 온다"

### 17~19일 美 'OCP 글로벌서밋'

### CXL 시장 선점 위해 기술 홍보 2030년 시장 규모 200억 弗 전망

SK하이닉스가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기술 공유 행사에서 자사의 CXL(Co-Compute Express Link) 기술 홍보에 나선다. CXL을 미래 먹거리로 정하고, 시장 선점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17~19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주 산호세에서 개최되는 'OCP 글로벌서밋 2023' 행사에서 CXL 기술 관련 발표를 진행한다.

OCP 글로벌서밋은 고밀도·고효율의 차세대 데이터센터 환경 구현을 위한 반도체 최신 기술과 다양한 연구성과, 기술력 등을 공유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무대다. SK하이닉스는 특히 이번 발표에서 향후 반도체 시장에서 큰 성장이 점쳐지는 CXL 기술 현황과 중요성을 중점으로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새 기술을 발표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발표는 △CXL:메모리 중심 컴퓨팅의 서곡 △대형언어모델(LMM)을 통해 성

능 향상을 위한 컴퓨팅과 메모리의 결합 △더 적은 투자로 더 많은 CASHE:소프트웨어 캐시의 CXL 메모리 대역폭 및 용량 확장 △근거리 메모리 처리 아키텍처 연구:프로그래밍 모델에 대한 설계 과제 및 고려사항 △데이터 중심 컴퓨팅의 현재와 미래 △SK하이닉스 CXL 분리형 메모리 솔루션 등 6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이번 발표는 자사의 기술 현황 등을 알리는 차원에서 마련됐다"며 "CXL은 향후 성장이나 확대가 기대되는 분야다. 현재 적극적으로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CXL은 중앙처리장치(CPU), 메모리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새롭게 제안된 PCIe 기반 차세대 인터페이스를 말한다. CXL은 인터페이스를 하나로 통합해 시스템 용량이나 대역폭을 확장해준다.

특히 최근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의 발달로 고성능 연산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이를 가능하게 하는 CXL이 향후 반도체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세계 최대 반도체 설계 자동화 기업 '케이던스'는 CXL 메모리 플랫폼 시장이 2030년 200억 달러(약 24조 원) 수준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민웅 기자 pmw7001@

## 웨어러블 로봇 속도내는 삼성... '봇핏' 출시 임박

### 지난달 보행보조 관련 2건 등 기술특허·상표 출원 사전작업 이르면 내달 정식 출시 전망

삼성전자의 웨어러블(착용형) 로봇이 이르면 다음 달, 늦어도 내년 초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IT·가전 전시회 CES 2023에 공개된 후 정식 출시될 전망이다. 첫 제품은 보행보조 로봇인 '봇핏(Bot Fit)'이다. 삼성전자는 보행보조 로봇 관련 특허를 지난달에만 2건 출원하는 등 제품 출시 사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15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달 25일과 26일 각각 '보행보조 장치 및 그 동작방법'과 '보행보조 장치' 특허를 출원했다. 이 특허는 모두 지난 10일 공개됐다.

삼성에서 공개한 '보행보조장치' 특허 내용은 △사용자의 허리 후방을 지지하기 위한 후방 지지 모듈 △운동을 보조하기 위한 동력을 제공하는 구동 모듈 등이 포함됐다.

'보행보조 장치 및 그 동작방법' 특허는 사용자의 현재 보행 스타일을 고려해 오른쪽과 왼쪽에 어느 정도의 힘을 부여할 지 등을 결정하는 기술이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5월에 2건, 7월과 8월에 각각 1건씩의 관련 기술 특허를 출원했다. 또 3월에는 '봇핏(Bot



'CES 2020'에서 관람객이 삼성전자의 웨어러블 보행보조 로봇 'GEMS'를 체험하고 있다. 사진제공 삼성전자

Fit) 상표권을 등록하고, 5월에는 '봇핏' 관련 콘텐츠 상표를 출원했다.

봇핏은 2019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19'에서 EX1(젠스립)이란 이름으로 첫선을 보인 후 삼성전자의 1호 웨어러블 로봇으로 관심을

받았다.

당초 삼성전자는 지난해 하반기에 웨어러블 로봇을 선보인다는 계획이었지만, 시제품 생산 및 제품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출시 시점을 미뤘다.

올해 3월 한중희 삼성전자 DX(디바이스솔루션)부문장 부회장은 삼성전자 비스포크 라이프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로봇사업팀이 올해 제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웨어러블 로봇은 옷처럼 입어 착용하는 것으로 단단한 외골격형과 부드러운 의복형으로 나뉜다. 봇핏은 외골격 슈트 형태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장애인 등이 무릎이나 발목에 착용할 경우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삼성전자의 봇핏 앱은 스마트폰으로 웨어러블 로봇을 자유자재로 제어하고 다양한 기능을 설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개발 초기 단계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노년층 등을 위한 '보조기구'를 표방했으나 연구를 거쳐 전 연령층을 아우를 수 있도록 근력강화·다이어트 등의 기능도 추가할 것으로 전해진다.

연내 출시를 위한 개발을 모두 마친 상태며 임직원들 상대로 파일럿 체험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삼성전자 관계자는 "봇핏 출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송영록 기자 syr@

## LG이노텍, 전기차 충전기술 3건 '국제표준특허' 등록

### 전기차 충전분야 라이선서 기업에 미래차 관련사업 신성장동력 육성

LG이노텍이 전기차 충전 부품에 대한 '국제표준특허' 보유 기업으로 공식 인정 받았다. 앞으로 글로벌 전기차 부품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LG이노텍은 전기차 충전분야 표준특허 라이선싱 전문업체(Via LA)로부터 라이선서 기업에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라이선서는 타인에게 특허기술 사용

을 허가하고 로열티를 받는 당사자다.

전기차 충전분야의 라이선서로 등재한 기업은 LG이노텍을 비롯해 세계적으로 GE, 보쉬, 지멘스 등 8개사에 불과하다.

LG이노텍이 인정받은 국제표준특허는 배터리 상태 정보를 기반으로 한 충전 제어 기술 2건, 충전 시간 예약 기술 1건 등 총 3건이다.

LG이노텍은 신성장 동력으로 미래차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전기차를 유선으로 충전하는 방식뿐 아니라, 무선충전 방식까지 지원하는 기술, 전

기차 및 외부 충전기용 전력변환 기술 등 다양한 연구개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미국 자율주행 스타트업 아르코AI로부터 180여 건의 특허를 인수한 점도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인수한 특허에는 라이다(LiDAR) 기술이 대거 포함돼 있다.

라이다는 빛을 쏜 뒤 돌아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측정해 대상과 거리, 방향 등을 탐지하는 센싱 기술이다. 이는 자율주행의 핵심 기술로 손꼽힌다.

유진의 기자 jinny0536@

Busan is good 부산이라 좋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KB국민은행이 응원합니다



# 오늘의 취업준비를

# 내일의 출근준비로



**KB굿잡 취업박람회** | KB국민은행이 주최하는 단일 규모 국내 최대 취업박람회로 2011년부터 현재까지 총 23회에 걸쳐 5천여 개의 우수기업과 117만 명의 구직자가 참여해, 약 3만 5천여 건의 일자리를 연결했습니다

## 2023 KB굿잡 부산 잡(JOB) 페스티벌 2023. 10. 18.(수) 부산 BEXCO 제1전시장

주최 부산광역시 KB국민은행 주관 부산경제진흥원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부산지방보훈청 재대군인지원센터 KEF 부산경제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부산지족회 M/1 부산벤처기업협회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테크노파크 동만성장위원회 한국무역협회 KBIZ 중소기업중앙회 KOLTA 한국산업기술협회 KOSDAQ 코스닥협회 TIPA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국방전직교육원 HRDK 한국산업인력공단 전국대학교 취업관리자협의회 후원 교육부 대한민국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KB금융공역재단

• 자세한 내용은 KB굿잡 홈페이지(<https://kbgoodjob.kbstar.com>)에서 확인하세요



# “시로 신발산업 다시 살릴 것... 글로벌 패션테크기업 도전”

## 탐방기UP 크리스틴 컴퍼니

### 부산 슈즈테크 분야 스타트업

“글로벌 패션테크 기업으로 성장해야죠. 사라져가는 신발산업을 살리는 것도 숙제입니다.”

부산은 한 때 국내 신발산업의 호황으로 주름잡던 곳이다. 짚신이 대중적인 신발이었던 1919년, 고무신 생산으로 우리나라 신발산업의 역사가 시작됐고, 그 꽃을 피운 곳이 부산이다. 신발은 밀면과 국밥에 비견할 만한 부산의 명물이었다. 이민봉 크리스틴컴퍼니 대표는 15일 서울 강남 사무소에서 진행된 본지와와의 인터뷰에서 “국내 신발 산업이 다시 전성기를 맞이하는데 힘을 보태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크리스틴컴퍼니는 국내 슈즈테크 분야 스타트업으로 2019년 부산에 설립됐다. 신발 브랜드와 제조 공장을 인공지능(AI)으로 매칭하는 플랫폼 ‘신플’을 운영하고 있다.

신플은 크리스틴컴퍼니 사업의 핵심 축으로 올해 1월 오픈했다. 신발 제작을 원하는 브랜드사가 조건을 선택하거나 디자인을 업로드하면 AI기술을 활용해 해당 신발을 가장 잘,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공장을 자동으로 매칭한다. 전통 신발산업의 생산구조를 디지털로 전환, 디자인뿐 아니라 생산, 보관, 검수, 물류 등 전 과정을 관리한다.

이 대표가 신플 서비스를 고안한 것은 수도권 브랜드사와 제조공장의 연결고리가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는 “수제화와 구두류 산업은 서울 성수동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신발 및 패션 브랜드 대부분은 수도권에 밀집하는데 정작 신발 제조 설비 공장은 부산·경남지역을 중심으로 조성돼 있다”며 “브랜드 업체가 신발을 제조하기 위해 어디에, 어떤 공장이 있는지도 모른 채 부산 일대에 무작정 내려가 발품을 팔아 공장을 찾곤 한다. 이런 과정에서 신발 제조를 포기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는 신발 제조 산업 경쟁력 약화



이민봉 크리스틴컴퍼니 대표는 서울 강남 사무소에서 가진 본지와와의 인터뷰에서 “국내 신발산업이 다시 전성기를 맞이하는데 힘을 보태고 싶다”고 말했다.



신발제조·브랜드 매칭 ‘신플’ 서비스  
디자인~생산 완료 6개월 이상 단축  
시리즈벤처스 등 투자 잇따라 유치  
해외 협력사 확보... 글로벌 진출도

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대표는 신발산업으로 호황을 누리던 부산이 업황 쇠퇴 이후에도 여전히 높은 제조기술과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오프라인 기반의 부·울·경 지역 제조공장과 온라인 기반의 서울·수도권 브랜드의 소통의 부재를 신플의 혁신 시스템이 채울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신발 산업에선 브랜드사가 신발을 제조하려

면 에이전시를 거치는 것이 관례다. 결국 에이전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고, 많은 수수료와 긴 생산 리드타임을 감수해야 한다. 에이전시와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제조 수량이 적은 브랜드는 생산조차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신플을 통해 신발 제조 공정에 최적화된 신발 원단 공장, 봉제 공장, 부자재 공장을 AI가 각각 연결하고, 당장 생산이 가능한 공장을 매칭해 제조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신플 솔루션을 도입한 뒤 디자인부터 생산 완료까지 평균 8개월 이상 걸리던 것을 2개월 내로 단축하기도 했다. 신플이 업계에 만연한 비효율적인 생산 구조와 폐쇄성, 높은 진입장벽 등을 해소하는 데에 일

조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현재 신플에는 전국 300여 개의 업체가 등록, 협력 중이다. 올해 플랫폼 론칭 이후 B2B(기업 간 거래)가 시작돼 연내 20개 브랜드와 작업이 이뤄질 예정이다. 올해 연말까지 전국 제조공장의 45%가 협력사로 손을 잡을 전망이다. 특히 부산뿐 아니라 서울 성수동 수제화 업계에서도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해외 협력사까지 확보하면서 아시아를 대표하는 신발 제조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년에는 글로벌 시장 진출에 나설 계획이다.

투자자들도 신플의 혁신성과 성과를 높게 평가했다. 지난해 네이버 D2SF, 시리즈벤처스 등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한 데 이어 같은해 10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세에스24파트너스 등에서 30억 원 규모의 추가 투자를 받았다. 이 대표는 매년 2배가량 보이던 성장세가 올해 4배 수준이 될 것으로 자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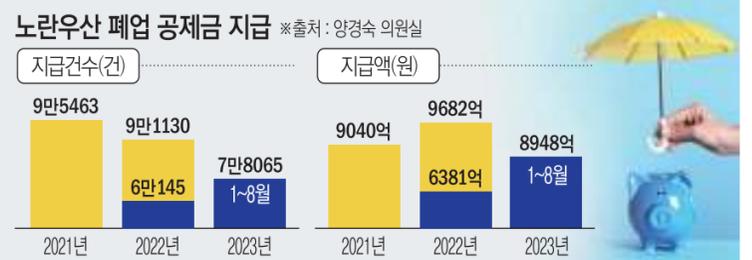
이 대표는 이같은 성장세와 함께 존재 위기에 몰린 국내 신발산업의 회복과 부활을 꿈꾸고 있다. 이 대표는 “이탈리아가 저가 신발 제조 대신 고가 맞춤형 신발 제조에 집중해 국가산업 전체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부산도 다품종 소량생산하는 고급화 전략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신플이 이같은 변화를 주도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 글로벌 종합환경기업으로 도약하겠습니다

국내 수처리 선도기업인 한성크린텍(주)가 (주)이엔코퍼레이션과 합병을 통해 종합 환경 기업으로 새로운 도약을 시작합니다.  
국내 초순수 시장에서의 독자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산업용 수처리 플랫폼을 선도하는 종합 환경 기업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초순수 국산화, 해수담수화, 하폐수·재이용 기술 그리고 대기 청정 기술 등을 통한 미래 환경 기술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산업용 수처리 기술을 선도하는  
한성크린텍이 되겠습니다.



## 올 노란우산 폐업 공제액 1조 넘을 듯

8월까지 9000억 육박... 40% 증가  
폐업 지급건수도 이미 8만건 육박  
고금리로 한계 내몰린 소상공인 급증

소기업·소상공인 안전망으로 불리는 노란우산공제의 올해 폐업 공제금 지급 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액은 894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2% 증가했다.

폐업 공제금 지급액은 2018년 5462억 원, 2019년 6142억 원 수준을 보이다가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2020년 7283억 원으로 증가했다. 2021년에는 9040억 원으로 증가폭이 더 커졌고, 지난해 9682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 폐업 공제금 지급액은 1~8월에 이미 9000억 원에 육박해 연간 수치가 1조 원을 넘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지급건수 역시 처음으로 연간 1만 건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폐업 공제금 지급건수는 2018년과 2019년 각각 7만2000건, 7만5000건 수준을 보이다 2020년 8만2000건으로 증가했다. 2021년에는 사상 최

대치인 9만5000건까지 늘었다가 지난해에는 9만1000건 수준으로 줄었다. 그러나 올해에는 8개월 동안의 폐업 지급 건수가 이미 7만8000건이다. 현 추세를 유지할 경우 10만 건을 훌쩍 넘어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통상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 소상공인들에게 퇴직금으로 인식된다.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를 위해 법에 의한 압류도 금지돼 ‘최후의 보루’로도 불린다. 연간 최대 50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도 제공한다. 2007년 출범 당시 4000명 수준이었던 공제 규모는 현재 171만 명에 달한다.

이같은 아픔에도 폐업 공제금이 늘어나는 것은 한계상황에 몰려 문을 닫는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의미다.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공공요금 인상 등이 더해지면서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설명이다. 계속되는 고금리로 인한 금융비용 부담 역시 요인으로 꼽힌다.

실제 한국은행의 ‘분기별 자영업자대출 연체율’ 자료를 보면 올해 2분기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기관 연체율은 1.15%다. 지난해 2014년 3분기(1.31%) 이후 8년 9개월 만에 최고치다. 양 의원은 “상황이 악화하면 국가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어 정부가 실태 파악과 함께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 각자도생 먼저?... 코인마켓거래소 협의체 9개월째 '잠잠'

“원화마켓과 동등한 기회를 달라” 6월 시중은행에 공문 보냈을 뻔 단체행동 無... 실명계좌 발급 ‘0’ 코인마켓 18곳이 완전자본잠식 “생존 더 시급” 협의체 활동 저조

**VXA·DAXA 회원사**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자 협의체(VXA)**  
 플랫폼엑스체인지, 플라잇, BTX, 프로비트, 포블게이트, 에이프로비트, 오아시스, 후오비 코리아, 지닥, 비블록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업비트, 빗썸, 코인원, 고팍스, 코빗



국내 코인마켓 거래소 10개사 대표들이 1월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자 협의체(Virtual asset eXchange Association, 이하 VXA)'를 출범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VXA는 올해 1월 플랫폼엑스체인지 △플라잇 △BTX △프로비트 △포블게이트 △에이프로비트 △오아시스 △후오비 코리아 △지닥 △비블록 등 코인마켓 거래소들이 참여해 설립한 협의체다. 업비트와 빗썸 등 국내 5대 원화마켓 가상자산 거래소로 구성된 디지털 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의 대안으로 만들어졌다.

출범 당시 각 거래소 대표는 “현재 한국 가상자산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소비자의 선택 권한을 제한하는 시장의 독과점이며, 독과점이 생긴 가장 큰 원인은 제한적 은행 실명계좌 발급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VXA가 출범하며 제기한 문제의식에 따라 6월에는 신한은행·NH농협은행·전

북은행·카카오뱅크·케이뱅크 등 5개 은행에 협의체 공동명의로 원화 거래소와 동등한 기회를 제공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실사 요청 공문을 전달했다. 해당 은행들은 현재 원화마켓 가상자산 거래소와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맺고 있다.

그러나 VXA는 실사 요청 공문을 전달한 이후 단체 행동을 보이지 않으며 동력을 잃은 모습이다. 실사 요청 공문 전달을 했지만, 아직 회원사 중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완료한 곳도 없다.

닥사가 회원사 간 거래소 내부 정책을 통일해나가는 것과 달리 VXA 회원사들

은 각개전투를 벌이고 있다. 포블게이트는 지난달 가상자산 경보제를 도입했다. 가상자산 경보제는 닥사가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정책인데, VXA 중에서는 포블게이트가 처음으로 적용했다.

VXA가 동력을 잃은 배경에는 코인마켓 거래소 대부분이 당장 생존 문제부터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있다. 최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발표한 가상자산사업자 2023년 상반기 실태 조사에 따르면 코인마켓 거래소 21곳 중 10곳은 거래 수수료 매출이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비트나 빗썸 등 원화마켓거래소는 원화를 충전해 코인을 거래하지만, 코인마켓거래소는 비트코인과 같은 대형 코인을 충전해야만 거래를 할 수 있다. 이에 현재 국내 가상자산 거래의 99%는 원화마켓거래소 내에서 이뤄지고 있다.

사실상 수수료 수익이 유일한 수익원인 가상자산 거래소 특성상 거래가 발생하지 않으면 고사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FIU에 따르면 상반기 코인마켓거래소 21곳 중 18곳은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윤희성 기자 yoonheesung@

## 고개 드는 '가상자산 기본소득론' ... 개인정보 침해·접근성 숙제

가상자산을 활용해 기본소득을 제공하자는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부터 민간 가상자산까지 다양한 방법론이 있지만, 사생활 침해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오준호 기본소득당 공동대표는 지난 11일 CBDC를 활용한 기본소득 실험을 제안했다. 이는 최근 한국은행이 CBDC 활용성 테스트를 곧 시작하겠다고 발표하는데 따른 것이다.

앞서 한국은행은 5일 금융기관 간 자금거래 및 최종 결제 등에 활용되는 '기관용 CBDC'를 중심으로 CBDC 활용성 테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개념검증(Proof of Concept, PoC)과 같은 가상의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기술 실험뿐 아니라, 일부 활용사례에 대해 제한적인 참여를 가능케 한다는 방침도 내놓았다.

오 공동대표는 한국은행이 제시한 '일

**오준호 기본소득당 공동대표**  
 “한은 CBDC 활용성 테스트 연계 가상자산 기본소득 실험” 제안  
 “AI 시대의 기본소득 대비하자” 해외에선 ‘월드코인’ 프로젝트 ‘홍채’ 개인정보 침해 논란 진행형

부활용사례’를 기본소득과 연계해 실험해 보자고 제안했다. 정해진 지역 내 전체 주민 혹은 청년 등 경제활동을 주로 하는 인구에 CBDC를 지급해 직접 사용하도록 하고 이 데이터를 분석해 보자는 것이다. 오 공동대표는 “(기본소득 실험이) CBDC 활용성 검증과 함께 기본소득의 사회경제적 효과도 확인하는 1석 2조의 실험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개인정보·사생활 침해 우려나 접근성 문제는 넘어야 할 산이다. 한은은

지난해 11월 2단계 실험 당시 CBDC를 압류할 수 있는 절차를 시스템적으로 구현한 바 있다. 중앙화된 체계를 가지고 있는 만큼, 개인의 기본소득 사용 내역을 국가가 들여다볼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 최신 기술을 사용하는 만큼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기술적 문제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오 공동대표는 “국가가 개인의 거래내역을 볼 우려는 있지만, 기술적으로는 이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또한 국회가 사생활 침해를 막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준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지하 거래나 불법 정치자금 전달 등을 막을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강조했다. 접근성 문제에 대해서도 “일상적으로 쓰는 현금이 미래에 앞으로 사라지면, 소외계층이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면서 “오히려 그러한 변화

(현금 소멸)가 오고 있기 때문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실험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CBDC 기본소득과 개념적으로 차이가 존재하지만,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 역시 ‘월드코인’ 프로젝트를 통해 다가오는 AI 시대의 기본소득을 대비하자는 주장을 해온 바 있다. 그는 올해 6월 9일 한국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AI가 가져올 노동의 변화를 언급하며 “다른 해결책도 함께 찾아야겠지만, 보편적 기본소득이 이에 대한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월드코인 역시 월드ID 생성 및 월드앱 사용을 위한 홍채 등록이 필수라 출시 이후 꾸준히 개인정보 침해 논란을 몰고 다녔다.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이 문제 때문에 홍채를 등록하더라도 월드코인을 취득할 수 없고, 수사를 진행 중인 국가도 있다.

기본소득으로서의 활용성에도 지속

월드코인 신원증명 장치 '오브'. 사진제공 월드코인

해서 물음표가 붙는 상황이라 프로젝트에 관한 관심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6월 약 180만 명이 월드ID를 등록했었는데, 4개월이 지난 현재에도 등록자수는 230만 명에 머물고 있다. 가격 역시 발행 당시 한때 2.7달러(약 3600원)를 넘어섰지만, 1달러대까지 떨어진 뒤 현재 1.5달러 수준이다.

한편, 오 공동대표는 월드코인에 대해 “제안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일자리가 없는 미래 기본소득을 고민하지는 취지는 좋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가치 안정성이 너무 떨어진다는 점에서 정책적인 기본소득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고 차이점을 설명했다.

이시은 기자 zion0304@

## KT, 中·日 통신사와 '글로벌 AI 콘퍼런스' 개최

中 광저우서 온·오프라인 진행 '지니버스' 생성형 AI 기술 소개

KT가 중국 차이나모바일 일본 NTT 도쿄모와 '글로벌 인공지능(AI) 콘퍼런스 2023'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5일 밝혔다.

글로벌 AI 콘퍼런스 2023은 한국, 중국, 일본 통신사업자 협의체인 SCFA의 '인공지능 워킹 그룹(AIWG)'이 주관하는 행사로, 지난해 서울에 이어 올해는 중국 광저우에서 지난 13일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됐다.

이번 콘퍼런스에서 KT는 기업·소비자

거래(B2C) 플랫폼인 '지니버스'의 생성형 AI 기술을 발표했다.

KT와 AI 반도체 및 초거대 언어모델(LLM)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는 리벨리온과 업스테이지는 각각 AI 컴퓨팅의 미래, LLM 인슈어테크(Insurtech·보험 기술)의 응용기술을 소개했다.

차이나모바일은 자체적으로 활용 중인 통합적인 AI 기술을 소개했고, NTT 도쿄모는 데이터 기반의 관리에 대한 도전을 주제로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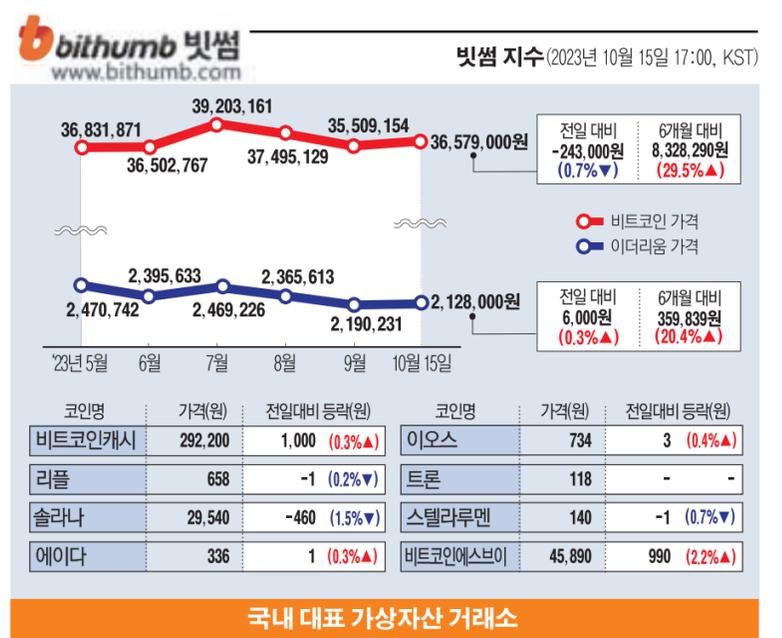
이밖에 화웨이는 AI를 활용한 혁신적인 컴퓨팅 기반 구축 기술을, 엔비디아는 생성형 AI와 아이폰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한·중·일 통신사는 함께 집필한 '통신 AI 산업의 발전을 위한 백서' 발간을 기념해 행사에서 기업들이 나아갈 방향을 공동 선언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AI 기술과 제품 개발에서 공정성·비차별·투명성·해석 가능성의 원칙 준수 △표준화와 개방형 생태계 통해 자원과 기술 공유 강화 △책임감 있는 AI 개발을 위한 사회적 책임 강화 등이 담겼다.

KT 융합기술원 AI2XL 연구소장인 배순민 상무는 “글로벌 AI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AI 콘퍼런스를 계속해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 정비사업 전자의결 제도화 착수... 조합원 운집 사라질까

재건축·재개발 전자총회 허용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與 주도 발의... 통과 전망 밝아  
도입 땀 시간·비용 절감 효과  
“사업 이해도 저하·대리투표 등  
부작용 막을 입법 보완” 지적도

재건축·재개발조합 등의 정비사업 총회 의결을 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 개최도 허용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021년 코로나19 유행 당시 집회가 어려운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재난 상황에 한정해 전자의결 방식을 허용했지만, 이후 집합 금지가 해제되면서 전자총회 개최 여부를 놓고 현장의 혼선이 이어졌다. 만약 이번 발의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 정비사업 조합의 전자총회(비대면)

개최가 평상시에도 허용되면, 정비사업 속도는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법안 통과를 계기로 수백~수천 명이 모여 투표하던 광경이 사라질지 관심이 쏠린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전자총회 개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이 최근 발의됐다. 해당 법안은 정비사업 과정에서 필요한 동의서 제출과 총회 의결권 행사에 전자적 방법 활용, 총회 온라인 참석도 직접 출석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권영세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은 김정재 의원 등 10명이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여당 발의안이고, 이해관계 충돌도 작은 만큼 통과 전망은 밝은 상황이다. 이번 법안 발의는 9·26 주택공급 대책에 포함된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절차다. 정부는 주택공급 물량 부족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전자총회 개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 발의됐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열린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포레온) 조합 총회에 조합원들이 입장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우려 해소를 위해 민간 주택건설 사업 활성화를 약속했다. 특히, 서울 내 공급 물량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절차통합과 전자총회 도입’ 추진 계획을 밝혔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전자적 의결 방식을 도입하면 사업 기간을 최대 1년가량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정비사업 조합총회의결은 모든 조합원 중 1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 또 조합 설립 총회나 사업시행계획서 변경 등은 조합원의 20%, 시공사 선정을 위해선 조합원의 절반 이상이 참석해야 한다. 수천 가구 규모 대단지 조합이 현장 참석 총회를 개최하기 위해선 비용은 물론, 의사결정을 위한 시간도 오래 걸린다. 그만큼 사업이 늘어질 수밖에 없는 셈이다. 실제로 강동구 둔촌주공(올림픽파크포레온) 조합원은 6100여 명,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4000명에 달한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전자총회를 할 수 있으면 사업 기간도 단축되고 비용도 줄일 수 있다”며 “특히, 시공사 선정 등이 지연되면 사업 기간이 늘어나 이자 부담이 커진다. 기간이 줄면 여러모로 유리하다”고 말했다. 다만, 조합원에 대한 정확한 설명 부족에 따른 이해도 저하와 대리투표, 투표권 거래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입법 과정에서 정부와 국회의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진형 공정경제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단순한 안건은 전자투표가 좋겠지만, 중요한 의사결정에 복잡한 사업 구조나 이해관계가 얽혔을 때 비대면 투표를 시행하면 조합원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투표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자투표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을 몇 가지로 한정하는 등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용욱 기자 dragon@

## 6만6000가구 남양주 왕숙 3기 신도시 착공

내년 하반기 분양 2년후 입주 시작  
3기 신도시 중 규모가 가장 큰 ‘남양주 왕숙 신도시’ 사업이 착공했다. 15일 국토교통부는 경기남양주시 진건읍에서 남양주 왕숙 신도시 사업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원희룡 국토부장관과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경기도, 남양주시 관계자 등 주요 인사 및 지역 주민이 참석했다. 남양주 왕숙 신도시는 청년과 무주택 서민 등을 위한 뉴·홈 2만5000가구를 포함해 총 주택 6만6000가구가 공급된다. 기존 계획대로 2024년 하반기 분양을 개

시하고, 2026년 하반기부터는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왕숙1 지구는 총 938만㎡ 규모로 여의도의 3배 규모에 달하며 5만 2000가구가 공급된다. 왕숙2 지구는 여의도 면적의 80% 수준인 239만㎡ 규모로 1만4000가구가 들어설 계획이다. 남양주 왕숙 신도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과 지하철 9호선 등으로 서울 도심까지 30분대 출퇴근이 가능하다. 역세권 주변으로 주거와 일자리, 교육·의료·문화 등 도시 인프라를 융·복합해 배치할 예정이다. 정용욱 기자 dragon@

## ‘악성 임대인’ 대신 2조 메꾼 HUG, 재무 부실화 우려

(주택도시보증공사)

역전세, 전세사기 여파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수요가 급증하면서 재무 부실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위변제액은 급증했지만, 회수율은 이에 한참 미치지 못하면서 갭이 빠른 속도로 마르고 있는 탓이다. 전문가들은 재무 건전성 악화로 보증 발급이 중단되는 등 최악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 서울보증보험(SGI 서울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 전세보증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해당 기관의 대위변제 건수는 9455건, 금액은 2조1396억 원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 4616건, 1조123억 원 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이들 세 기관의 대위변제 규모는 2020년 3013건(6141억 원), 2021년은 2811건(5849억 원)이었으나, 전세사기 사태가 불거진 지난해부터 크게 늘었다. 세 기관 중 보증 금액이 가장 많은 곳은 HUG다. HUG의 올해 8월까지 대위변제 건수는 총 9017건, 금액은 2조 47억 원에 달한다. 대위변제 금액은 늘어난 반면 회수율은 턱없이 떨어진다. 국토위 소속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HUG의 대위변제 회수액은 전체 대위변제액의 15%인 2442억 원에 불과하다. HUG의 대위변제액 회수율은 2018년 48%, 2019년 58%, 2020년 50%, 2021년 42%였으나 지난해 24%로 반 토막이 났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HUG가 보증보험 가입자들에게 제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은 갈수록 축소되고 있다. 올 6월 기준 HUG의 지급여력비율은 212%로, 2020년 532% 대비 절반 이하로 쪼그라들었다. HUG 측은 전세사기로 늘어난 신규 수요 급증으로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재정 리스크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정부는 주택도시보증법 시행령을 개정해 HUG가 자기 자본의 70배까지 보증이 가능하도록 규모를 확대했다. HUG 관계자는 “8월부터 보증 배수가 늘어났지만, 개인뿐 아니라 기업, 주택사업자 등 지원해야 하는 수요가 많아서 한계가 있다”면서 “채권 관리나 회수 부분에 대해서는 자구책을 마련해 관리하고 있고, 보증 수요 증가 같

은 외생 변수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보증보험료 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검토 중인 바가 없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HUG의 재무 부실화로 전세 보증 발급이 중단되는 등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장기적으로 정부의 지원 규모를 축소하거나 HUG의 대주주인 국토교통부의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인호 송실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모든 것을 세금으로 해결하기 보단 임대인과 임차인이 일정 부분 부담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HUG 보증 중단 등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 추가적인 재무 부담을 키우지 않고, 정부 개입을 축소하는 방향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학환 송실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교수(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고문)는 “HUG로서는 물어줄 금액은 많고 들어오는 건 적으니 부실화 우려가 커지는 것”이라며 “부득이하다면 보험료를 올려 손실을 메꿀 수 있겠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HUG 자체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대주주인 국토부에 책정된 예산을 융통성 있게 투입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진리 기자 truth@

### 금주의 분양캘린더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10월 셋째 주에는 전국 17개 단지에서 1만3822가구(일반분양 7495가구)가 분양된다. 서울 강동구 ‘더샵 강동센터럴시티’와

경기 광명시 ‘트리우스광명’, 강원 강릉시 ‘강릉오션시티 아이파크’ 등이 17일 정약을 진행한다. 18일에는 경기 구리시 ‘구리갈매역세권 A4’와 남양주시 ‘남양주진점2 A6’ 사전청약이 진행된다. 또 19일에는 경기 파주시 ‘파주온정3 A22’ 공공분양 정약을 받는다.

날짜	구분	시	구시군	읍면동	아파트명
10/17 (화)	접수	서울	강동구	천호동	더샵강동센터럴시티 1순위
		경기	광명시	광명동	트리우스광명 1순위
		경기	수원시	서둔동	힐스테이트수원파크포레 1순위
		경기	안양시	안양동	디오르나인안양역 1순위
10/18 (수)	접수	서울	강동구	천호동	더샵강동센터럴시티 2순위
		경기	광명시	광명동	트리우스광명 2순위
		경기	구리시	갈매동	구리갈매역세권A4(사전청약) (~10/19)
		경기	구리시	갈매동	구리갈매역세권A4공공임대(사전청약) (~10/19)
		경기	군포시	대야미동	군포대야미A1공공임대(사전청약) (~10/19)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남양주진점2A6(사전청약) (~10/19)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남양주진점2A6공공임대(사전청약) (~10/19)
		경기	수원시	서둔동	힐스테이트수원파크포레 2순위
		경기	안산시	장상동	안산장상A12나눔형(사전청약) (~10/19)
		경기	안양시	안양동	디오르나인안양역 2순위
		경기	하남시	교산동	하남교산A5나눔형(사전청약) (~10/19)
		인천	계양구	굴현동	인천계양A6(사전청약) (~10/19)
10/19 (목)	접수	인천	서구	볼로동	인천검단신도시메트로더에듀 1순위
		경기	파주시	동패동	파주온정3A22(공공분양) (~10/20)
10/20 (금)	오픈	경기	시흥시	정왕동	힐스테이트더웨이브시티
		경기	안양시	석수동	안양자이더포레스트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더샵의정부역링크시티
		경기	이천시	중포동	이천자이더리체
		부산	강서구	강동동	중흥S-클래스에코델타시티

(주1) \* = 오피스텔 (주2) 1순위 청약접수 및 견본주택 오픈 단지는 색으로 표시 (주3) 오픈 단지는 사업진행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자료: 부동산R114

## DL이앤씨, 부천열병합발전소 현대화사업 ‘3930억’ 수주

DL이앤씨가 부천열병합발전소 현대화사업 건설공사(사진 조감도)를 수주했다고 15일 밝혔다. 총 공사금액은 3930억 원이며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호기 36개월, 2호기 70개월이다. DL이앤씨는 올해 플랜트 부문에서 적극적인 수주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까지 신규 수주는 약 2조8000억 원으로 연초 제시한 목표 3조5000억 원에 가까워졌다. 이번 사업은 부천열병합발전소 운영사

인 GS파워가 발주한 노후 발전소 현대화 프로젝트다. 부천열병합발전소는 1993년 부천 중동신도시 건설에 맞춰 상업운전을 시작했으며 올해 설계수명인 30년이 도래했다. 이번 공사가 마무리되면 발전용량이 450MW에서 1000MW로 확대된다. 또 발전소가 동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설비를 구축해 친환경 발전소로 거듭난다. DL이앤씨는 국내외에서 다양한 발전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과 노하우를 인정받아 이번 사업을 수주했다. DL이앤씨는 인천 송도열병합발전소, 경기도 광교열병합발전소 등 유사 프로젝트를 수행한 실적이 있다. 정용욱 기자 dragon@·사진제공 DL이앤씨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하나금융그룹



# 하나를 만나면

신규·휴면 손님 대상  
3개월간 300만원까지

하나를 만나면  
CMA(RP형)

7% (세전)  
연 %



## 하나를 만나면 CMA(RP형)

- 기간 : 2023년 10월 13일(금)~12월 31일(일)
- 대상 : 아래 대상에 해당하면서 본 광고의 이벤트 참여 QR코드로 비대면 종합매매계좌를 개설한 손님
  1. 하나증권 최초 신규 손님(주민등록번호 기준 1인 1회 참여 가능)
  2. 이벤트 신청 전일 기준 3개월간 하나증권 잔고가 0원 손님

하나가 드리는 이벤트 혜택  
**하나. 하나를 만나면 CMA(RP형)**  
**둘. 국내/해외 주식거래 우대수수료 적용**  
**셋. 애플 소수점주식 1천원상당 증정**

문의 : 하나증권 손님케어센터 1588-3111

**[이벤트 유의사항]** \*본 이벤트는 하나증권의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단, 기 조건 충족 손님 제외) \*본 광고의 QR 코드가 아닌 타 매체를 통해 계좌개설한 경우 혜택 적용이 불가합니다. \*본 이벤트는 개인손님 대상으로 진행하며 주민등록번호 기준으로 1인 1회 참여 가능합니다. (법인, 외국인 제외) \*본 이벤트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 및 SMS 마케팅 이용에 동의하신 손님에 한하여 참여 가능합니다. \*연락처가 상아하여 본인확인이 어렵거나 계좌가 폐쇄되는 경우 등에는 혜택을 적용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투자자는 금융상품에 대하여 금융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가입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상품은 예금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자산가격 변동, 환율 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CMA 입금액은 RP에 투자됩니다. \*RP수익률은 입금 시 회사가 고지하는 약정수익률이 적용되며, 이는 시장금리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우대수수료 적용기간(연 7.0%, 세전, 계좌개설일로부터 3개월) 종료 시에는 종료 시점에 고시된 수익률(2023.09.10 기일준 연 3.15%, 향후 변동 가능)이 적용됩니다. \*국내주식 온라인 매매수수료는 0.0141639%, 해외주식 온라인 매매수수료는 국가별, 주문방법에 따라 상이(미국 0.25%, 중국 0.30%, 등)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나증권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주식 매매 시 주당 0.003 USD, 매도 시 0.0008%, 중국주식 매매 시 0.00841%, 매도 시 0.05841% 제비용을 부과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나증권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종목에 대하여 소수점 거래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은 아니며, 증권사에 소수점 거래가 가능한 종목 확인이 필요합니다. \*증권사는 여러 투자자의 소수단위 매매주문을 취합하여 집행함에 따라 투자자의 매매 주문과 체결 시점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매매 가격 혹은 실제 배당받는 주식 수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소수단위 주식은 타 증권사로 대체가 불가능합니다.(소수 단위 보유분에 대해서도 1주 단위 계좌 대체는 가능)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3-03784호 (2023.10.16~2023.12.31)



이벤트 참여 QR코드



〈7~9월 1291개 새마을금고 중 29%〉

# 375개 금고 '신규대출' 빚장...서민부터 죄는 '서민금융'

## 연체율 비상' 위기의 새마을금고

신용등급 높은 차주에게만 대출 건전성 개선 등 리스크 관리 나서 2금융권 상호금융 등 대출도 뚝 하반기 대출받기 더 어려워질 듯



신용대출 관련 새마을금고 현황 (단위: 곳) ※ 9월 기준(7~9월 신규취급대출)

전체	1291
신규대출 취급 X	375
1~3등급만 신규대출취급	325
1~4등급만 신규대출취급	142

※출처: 새마을금고중앙회

2금융권 업권별 가계대출 잔액 (단위: 억원) ※ 2023년 기준

	1월		7월	
	잔액	연체율	잔액	연체율
저축은행	40조2687	3.1%	39조9514	3.1%
상호금융	196조1673	1.5%	186조7641	1.5%
신용협동조합	37조6348	0.4%	36조1302	0.4%
새마을금고	66조8319	6.6%	63조4497	6.6%

※출처: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새마을금고를 비롯한 2금융권이 대출 문을 닫았다. 고금리 기조 장기화와 부동산 관련 대출 리스크 확대에 따라 건전성 지표 관리에 나선 것이다. 특히 새마을금고는 7월 백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사태를 겪은 후 연체 위험성이 큰 신용대출부터 줄인 모습이다.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도 대출문턱을 높이면서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2금융권 정체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전체 1291개 금고 중 375개 금고(29%)가 직전 3개월간(7~9월) 신규 신용대출을 취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8월 말 같은 기준 352개 금

고보다 23개 늘어난 수치다. 신규대출을 취급한 금고 중에는 신용등급이 상대적으로 높은 차주들을 대상으로 대출을 집행한 경우가 많았다. 이 기간 신규대출을 취급한 916개 금고 중 신용등급 1~4등급에게만 대출을 실행한 금고는 142곳(15.5%)이었다. 특히 1~3등급의 고신용 차주에게만 신용대출을 신규 취급한 금고는 325곳(35.5%)에 달했다. 반면, 신용등급 7등급에까지 신규대출을 취급했다고 공시한 금고는 16곳(1.7%)에 불과했다.

지역새마을금고들이 신용대출 취급을 제한하는 것은 연체율 등 리스크 관리 때문이다. 신용대출은 담보물이 없어 상대

적으로 부실 위험이 큰 대출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상반기 새마을금고의 전체 연체율은 5.41%로, 지난해 말 대비 1.82%포인트(p) 올랐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1.57%로, 전년 말 대비 0.42%p 상승했다. 연체율 관리가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신용대출 취급 규모 감소로 이어진 것이다.

신규대출 규모를 줄이는 것은 새마을금고뿐 아니라 2금융권 전체적인 흐름이기도 하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규모는 올 1월 196조1673억 원에서 7월 186조7641억 원으로 9조4032억 원이나 쪼그라들었다. 신용협동조합은 같은 기간 37조6348억 원

에서 36조1302억 원으로, 저축은행은 40조2687억 원에서 39조9514억 원으로 각각 1조5046억 원, 3173억 원 줄었다.

새마을금고의 신규대출 감소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당장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진 금고들이 있어서다. 9~10월 두 달간 수시공시를 살펴보면 자산건전성이 4등급으로, 취약하다고 평가받은 금고가 14곳이었다. 자본적정성이 4등급이거나 5등급(위험)인 곳도 6곳이었다. 새마을금고 감독기준제12조에 따르면 경영실태평가 결과 자본적정성 또는 자산건전성 부분의 평가등급을 4등급 또는 5등급으로 판정 받은 경우, 경영개선이 권고된다. 같은 기간 자산건전성, 자본적정성 등을 종합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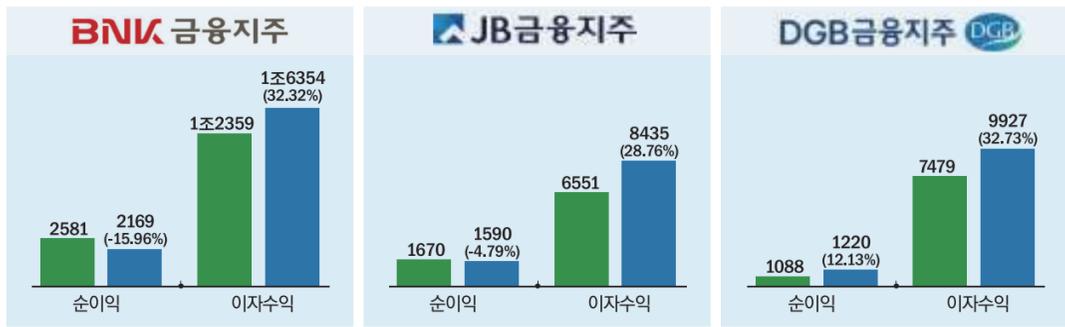
종합평가등급을 4등급 또는 5등급으로 판정받아 경영개선이 '권고'를 넘어 '요구'된 금고도 한 곳 있었다.

문제는 이 같이 경영 지표가 좋지 않은 부실 금고의 우량화를 위한 금고 간 통폐합이 당분간 쉽게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일부 금고 통폐합에 따라 전체 새마을금고 위기론이 다시 수면 위로 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통폐합을 통해 부실한 금고를 우량화하지 못하면, 해당 금고는 신규대출 규모를 더 줄일 수밖에 없다. 수시공시에 따르면 경영개선을 권고받은 금고들은 신규대출 취급단계부터 연체율 관리를 위한 심사를 강화해야 하고 건전대출활성화를 꾀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높은 차주를 대상으로 대출을 취급하는 경향이 강해질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

업권 관계자는 "새마을금고가 올해에는 성장보다 내실 위주의 경영방향을 꾀하고 있어 건전성 지표 개선 등 리스크 관리에 신경써야 한다"며 "이때문에 하반기에는 대출받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하영 기자 haha@

3대 지방금융지주 3분기 실적 전망 (단위: 억원) ※ 2023년은 추정치, 지배기업 지분 기준



이자이익은 늘었지만... 예상보다 많은 총당금 적립에 '뾰'

## 3분기 실적 '빨간불' 켜진 지방금융지주

3대 지방금융지주(BNK·JB·DGB)가 3분기 암울한 실적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대출 성장세에 힘입어 이자이익은 늘었지만, 예상보다 많은 총당금을 적립하면서다.

15일 금융정보업체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3대 지방금융지주들의 3분기 지배주주순이익 전망치는 4979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5339억 원)보다 6.74%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BNK금융지주는 전년 동기 대비 15.96% 감소한 2169억 원의 순이익을 올릴 것으로 봤다. JB금융지주의 순이익 전망치는 159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9%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DGB금융지주는 12.13% 증가한 1220억 원의 순이익을 낼 것으로 집계돼 지방금융지주 중 유일하게 증가세를 보였다.

고금리 여파로 자산건전성이 악화하면서 지주들이 예상보다 많은 총당금을 적립해 리스크를 대비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3대 지방금융지주의 올 상반기 총당금 전입액은 7219억 원으로 1년 전보다 89.2%(3404억 원) 증가했다.

대출 성장세에 힘입어 모두 견조한

3대 지방금융지주 순익 6.74% ↓ BNK 16% 뚝... JB 4.8% 감소 DGB만 12% ↑ '나홀로 증가세'

자산건전성 악화 우려 리스크 대비 은행채 금리 추가상승 '긍정 기대'

이자수익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BNK금융지주의 3분기 이자수익 전망치는 1조635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32% 증가가 예상된다. JB금융지주와 DGB금융지주는 각각 8435억 원, 9927억 원으로 각각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76%, 32.73%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BNK금융의 경우 이자수익이 예측돼 지방금융지주 중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지만 높은 대출 성장세에도 비용이 늘어 순이자마진(NIM)은 하락할 것으로 예측됐다. 경남은행의 선제적 자금조달로 예대출 하락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강승권 KB증권 연구원은 "3분기 NIM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순이자이익이 줄어들 것"이라며 "증권·캐피탈의 이익 감소, 약 440억 원의

추가 총당금 적립에 따라 총당금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JB금융지주도 개인신용대출, 일부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하면서 추가총당금 규모도 큰 폭으로 늘어날 것이라 분석했다. 그러나 이자이익이 증가 전환됐고, 주식과 채권의 가격이 떨어지면서 이에 따른 기저효과로 비이자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김민 BNK투자증권 연구원은 "상반기 높은 마진의 전략상품이었던 개인신용대출 연체율 상승 우려는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면서 완화하고 있다"면서 "특히 조달 부담 완화로 3분기 이후 분기 NIM이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DGB금융도 보수적인 총당금 적립으로 순이자이익 대치를 맡길 것으로 보인다. NIM은 전분기 대비 소폭 하락할 것으로 관측됐는데, 높은 대출 성장세 속에서도 선방했다는 평가다.

백두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은행 NIM은 2.00%로 전분기 대비 1bp 하락할 전망"이라며 "높은 대출 성장세를 감안하면 선방한 결과로 특히 9월 들어 추가 상승한 은행채 금리는 향후 NIM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

## 중·저신용 대출 늘리니 연체율 '쑥' 인터넷銀 "건전성 관리 문제없다"

담보대출 증가로 신용리스크 감소 대손충당금도 작년보다 크게 늘어

인터넷전문은행들의 연체율이 급등해 건전성에 빨간 불이 켜졌다.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 공급을 늘리면서 인터넷은행 3사가 출범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인터넷은행들은 담보대출 비중이 늘어난 데다 총당금을 충분히 적립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인터넷은행의 8월말 신용대출 연체율은 평균 1.30%다. 이는 작년 말(0.80%) 대비 0.5%포인트(p) 오른 수치다.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2분기말 평균 연체율이 0.24%임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다.

특히 8월 중·저신용대출 연체율은 2.79%로 작년말 1.71% 보다 1%p 가량 늘었다. 연체율 증가는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늘리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실제 인터넷은행 3사는 중·저신용자 대출 규모와 비중은 매년 급증 추세다. 2021년 말 3조5000억 원 규모에 17.10%의 비중을

차지했던 중·저신용자 대출은 지난해 말 8조2000억 원(29.10%)까지 확대됐다. 8월 기준 9조1000억 원까지 불어난 가운데 전체 대출의 29.60%를 차지하고 있다.

업체별로는 2분기 기준 카카오뱅크의 중·저신용자대출 잔액은 3조9184억 원(27.7%)에 달한다. 케이뱅크는 4640억 원(24.0%)을 공급했고 토스뱅크는 3조700억 원(38.5%)을 기록했다.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의 올해 중·저신용자대출 비중 목표치는 각각 30%, 32%, 44%다.

높은 연체율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은행은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늘리는 과정에서 생긴 예상했던 수순이라며 "관리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담보대출 비중이 늘면서 차주의 신용리스크에 따른 영향이 줄었다고 강조했다. 인터넷은행 3사의 가계대출 잔액 54조2565억 원 중 담보대출 잔액은 23조3828억 원으로 비중은 43.1%다. 이는 작년 말 35.6% 대비 7.5%p 늘어난 수치다. 총당금 쌓기에도 올인하는 모습이다. 올 상반기 인터넷은행 3사가 쌓은 대손충당금은 3831억 원으로, 전년 동기(1945억 원) 대비 96% 급증했다.   
김범근 기자 nova@

## 하나금융 '무료 웨딩홀' 1호 부부 탄생

저출산 극복·상생금융 확산 일환

하나금융그룹은 예비 신혼부부들의 결혼식을 위해 무료로 대관해주는 '하나그랜드홀'에서 첫 번째 결혼식이 열렸다고 15일 밝혔다.

하나그랜드홀은 하나금융이 그룹 사옥 내 공간을 예식장으로 리모델링해 무료로 대관해주는 공간으로, 저출산 위기극복과 상생금융 문화 확산 등을 담은 '2023 하나인생 여정 지원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하

나그랜드홀은 명동·청라·여의도 등 그룹 건물 내 위치해 있으며 예비 신혼부부에게 결혼식 장소로 무상 제공된다. 전날 1호 부부의 결혼식이 열린 '하나그랜드홀 명동'은 5월 리모델링을 마치고, 총 수용인원 200여 명의 규모로 명동사옥 4층에 새롭게 개관했다.

하나그랜드홀은 하나은행 대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하나원큐'를 통해 결혼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정성원 기자 jsw@

# 겁악재에 '추풍낙엽' 증권사... 실적도 주가도 '우수수'

## 증권업종 실적 전망

국내 증권사들의 3분기 실적이 부진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와 미국의 고금리 장기화 우려, 전쟁 등 악재가 산적해 있어서다. 대표적 배당주로 꼽히는 증권주도 지지부진한 주가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3분기 증권사 실적 '적신했'...반전은 없었다= 15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3분기 국내 주요 증권사 5곳(미래에셋증권, 한국금융지주(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키움증권)의 지배주주 순이익은 7549억 원으로 전망된다. 한달 전 전망치(8204억 원)보다 8%가량 하향 조정된 수치다.

이들 증권사가 전망치에 부합한 성적표를 받는다면, 올해 분기별 순이익 증가가 낮은 성적을 기록하는 것이다. 5대 증권사의 지배주주 순이익은 1분기 1조2661억 원, 2분기 8198억 원을 기록했었다. 3분기 전망치는 1·2분기에 비해 각각 40.38%, 7.92% 줄어든 규모다.

증권사별로는 실적 추경치가 엇갈렸다. NH투자증권(-34.92%)과 한국금융지

주(-13.69%), 미래에셋증권(-2.04%)의 지배주주 순이익은 전 분기 대비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지만, 키움증권(18.30%)과 삼성증권(4.82%)은 늘어날 전망이다.

◇부동산 PF·美 고금리 장기화 등에 '발목' = 부동산 PF 리스크가 지속된 것이 실적 부담으로 작용했다. 특히 해외 부동산 익스포저(위험 노출액)를 포함하면 위기는 더욱 커졌다.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국내 25개 증권사의 국내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는 47조6000억 원에 달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고금리 장기화 우려도 악재다. 미국 장기국채 금리가 16년 만에 최고치를 찍고 국내 채권 금리도 덩달아 오르면서 증권사별 채

권 운용 손실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고금리는 증시 약세와 함께 증시를 떠날 치는 합인 자금 유입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1분기 50조 원, 2분기 51조 원을 넘긴 투자자예탁금은 3분기 49조 원대로 쪼그라들었다. 시장에서는 증권사들이 주식 거래로 버는 수익 또한 정점을 찍고 반락할 것으로 봤다.

이홍재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전 분기 대비 리파이낸싱 수요 감소 등에 따라 투자금융(IB) 관련 수수료 수익이 둔화된 영향으로 전체 수수료 손익은 전 분기 대비 5.5% 감소할 것"이라며 "운용·기타 손익은 채권 및 비시장성 자산 평가손실 기저 영향으로 개선되지만, 조달 비용 확대

에 따라 이자 손익은 전 분기 대비 7.7% 감소할 것"이라고 했다. ◇증권사, 4분기 더어둡다... 증권주도 하락세 = 문제는 증권사 실적이 4분기 들어서도 개선 조짐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5대 증권사의 4분기 지배주주 순이익 예상치는 6394억 원으로, 3분기 전망치보다 15% 더 하락할 전망이다.

## 글로벌 IB 불법공매도 적발

### 금감원 "홍콩계 IB 고의성 확인 땀 조사 확대"

이번에 적발된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대규모·관행적 불법 공매도에 대해 감독당국은 해당 IB들이 고의성을 가지고 불법 공매도를 반복해왔다고 해석했다.

15일 김정태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그간 적발된 불법 공매도 건은 실수나 착오 등으로 발생한 경우가 대다수였다. 이러한 공매도 행위가 불법이라는 것을 글로벌 IB가 몰랐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사후차입 방식으로 공매도를 계속해왔다는 것은 우리 시장에 대해 이해가 없다고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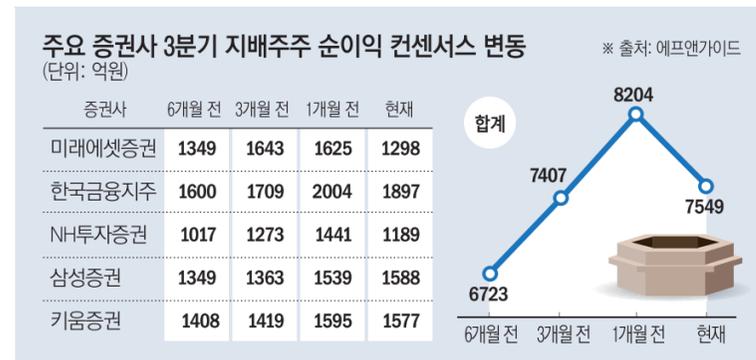
이어 "이전에는 이용자 차원에서 악재성 정보를 활용한 무차입 공매도 사례가 적발된 바 있었는데, 이번 건은 공매도·매도스왑(TRS) 등 주식투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IB가 프로세스상으로 장기간 방치된 관행적 불법 공매도"라고 규정했다.

다만, 이번에 적발된 불법 공매도 건

사후차입 방식 장기간 반복해 관행적 불법공매도 행위 규정 수수료수익 극대화 목적 추정

으로 주가가 출렁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승우 금감원 조사2국장 "개별 종목과 개별 투자자들의 비중 자체는 크지 않아서 해당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하락으로 전환하지는 않았다"며 "이들도 공매도를 한 후 이를 청산하고 매수하는 과정에서 손실을 입기도 하는 등 단정적으로 공매도가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주가 하락 등 영향을 주지 않아 직접적인 수익이 불투명함에도 글로벌 IB들이 무차입 공매도를 관행적으로 해온 목적으로는 수수료 수익이 지목됐다. 해외 기관투자자가 국내 주식에 대한 매도스왑 주문을 접수한 경우 글로벌 IB는 매도스왑거래를 체결하는 한



권 운용 손실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고금리는 증시 약세와 함께 증시를 떠날 치는 합인 자금 유입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1분기 50조 원, 2분기 51조 원을 넘긴 투자자예탁금은 3분기 49조 원대로 쪼그라들었다. 시장에서는 증권사들이 주식 거래로 버는 수익 또한 정점을 찍고 반락할 것으로 봤다.

이홍재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전 분기 대비 리파이낸싱 수요 감소 등에 따라 투자금융(IB) 관련 수수료 수익이 둔화된 영향으로 전체 수수료 손익은 전 분기 대비 5.5% 감소할 것"이라며 "운용·기타 손익은 채권 및 비시장성 자산 평가손실 기저 영향으로 개선되지만, 조달 비용 확대

에 따라 이자 손익은 전 분기 대비 7.7% 감소할 것"이라고 했다.

◇증권사, 4분기 더어둡다... 증권주도 하락세 = 문제는 증권사 실적이 4분기 들어서도 개선 조짐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5대 증권사의 4분기 지배주주 순이익 예상치는 6394억 원으로, 3분기 전망치보다 15% 더 하락할 전망이다.

실적 기대감이 줄면서 증권사 주가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증권사 11곳으로 구성된 KRX 증권 지수는 최근 한 달간 1.22% 하락했다. 증권주와 함께 배당주로 꼽히는 금융주가 반등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같은 기간 KRX 보험 지수는 3.81%, KRX 은행

지수는 2.20% 상승했다.

주요 증권사 중 적정주가 하향 조정된 곳도 있다. 미래에셋증권의 증권사별 적정 주가는 평균 7950원으로, 기존(8222원)보다 3.31% 하향 조정됐다. 키움증권도 기존 13만2273원에서 13만1231원으로 0.79% 떨어졌다.

증권사 실적 개선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강승건 KB증권 연구원은 "증권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시기는 내년 중순 이후가 될 것"이라며 "2024년 중순 이후 기준 금리가 하락 사이클로 진입할 수 있으며, 2018-2019년 설정된 해외 부동산펀드에 대한 이슈가 실적에 상당 부분 반영돼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국면으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조아해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현 국내 증권사의 자기자본이익률(ROE)은 변동성이 높아 중장기적으로 ROE 제고 방안이 밸류에이션의 주요 관건으로 작용할 전망"이라며 "안정적인 수익원 확보를 통해 ROE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배당정책 등 활용으로 ROE를 제고하는 증권사들 중심으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예상된다"고 했다. 손민지 기자 handmin@

**KRX 금시장 투자방법 및 특징**

거래단위	1g
거래가격	시장가격
장내거래 수수료 및 세금	증권사 온라인수수료(0.3% 내외), 매매차익 비과세
실물인출 비용	개당 2만원(VAT 10% 별도)

※ 출처: 한국거래소

## 세계경제 불안에 안전자산 주목 KRX금시장 105만 계좌 넘었다

현물보관·인출 쉽고 거래비 낮아 금거래 고객 골드바 증정 이벤트

안전자산의 대표주자인 금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일반투자자들이 한국거래소(KRX) 금시장에 투자하기 위해 시중 증권사에 개설한 금현물계좌수가 상반기 105만 개를 돌파했다.

금가격은 최근 미국 은행 도산, 인플레이션, 달러화에 대한 우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무력 충돌 사태 등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증권시장에 익숙한 젊은층 사이에서 '금테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RX금시장에 투자하기 위한 계좌가 상반기 현재 105만 개를 넘어섰다. 금현물계좌수는 2021년 말 88만5000개, 2022년 말 98만6000개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금값도 많이 오르는 추세다. 13일 기준 KRX금시장의 1g당 가격은 8만1820원이었다. 전년 말(7만4360원) 대비 10% 상승한 금액으로 금시장이 개설된 2014년 말(4만2330원)과 비교하면 상승폭이 93.29%에 달한다.

지난해부터 지속해 온 미국 은행의 도산과 인플레이션, 올해 달러화에 대한 우려 등이 안전자산인 금의 수요를 부추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구나 최근 중동지역에

서의 전쟁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안전자산 쏠림 현상이 더욱 극심해지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국내 금시장에 투자하는 개인들의 절반가량(46%)이 2030 세대라는 것이다. 거래소는 "금현물을 매입해 개인 보관하는 세대와 달리, 20~30대 젊은층은 증권시장에 익숙하고 재테크에 밝아 금 현물을 투자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현물 보관과 인출이 자유롭고 거래비용이 비교적 낮은 점도 '금테크'를 부추긴 요인이다. 골드뱅크와 금 펀드는 매매차익에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되는 반면 KRX 금시장은 매매 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이 없다.

또한 KRX금시장 시세는 국제금시세와 매우 유사한 흐름(국제금시세 대비 99.5%~100.5%)을 보인다. 밤을 새워 해외시장에서 거래할 필요가 없는 셈이다.

중간 수수료 부담도 거의 없다. 금은 일일 가격 변동폭이 평균 ±0.5% 이내로 작다. 따라서 금 투자로 수익을 올리려면 거래비용을 최소화 해야 한다. KRX금시장에서는 투자자들이 0.3% 내외의 증권사 거래수수료만 부담하면 합리적인 가격에 거래할 수 있다.

한편 한국거래소가 오는 20일까지 100만 계좌 돌파를 기념해 신규 금현물계좌를 개설하거나 1g 이상 거래한 고객들에게 추첨을 통해 골드바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권태성 기자 tskwon@

## 흑자전환 전망에도 눈높이 낮아진 LGD 주가

LGD디스플레이가 7분기만에 흑자로 돌아설 전망이지만 주가는 영 힘을 받지 못하는 분위기다.

15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LG디스플레이는 4분기 영업이익 636억 원을 달성하며 흑자전환할 것으로 예상됐다. 작년 2분기부터 이어진 적자 늪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반면 증권사들의 주가 기대는 낮아지고 있다. IBK투자증권은 13일 LG디스플레이의 목표주가를 기존 1만8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앞서 7월에도 2만 원에서 1만8000원으로 목표가를

LG디스플레이 목표주가 (단위: 원)

증권사	직전	현재
IBK투자증권	1만8000	1만5000
삼성증권	1만4400	1만3400
한국투자증권	1만7500	1만6000
신한투자증권	1만8000	1만7000
흥국증권	2만1000	1만7000

※ 출처: 에프앤가이드  
낮춘 바 있다. 이달 삼성증권(1만4400원→1만3400원), 한국투자증권(1만7500원→1만6000원)이 각각 목표가를 내렸다. 목표주가를 끌어내리는 요인은 3분기

3분기 예상 밖 부진에 연간 실적 전망치 하향

실적이다. 3분기 영업손실 규모는 5587억 원으로 추정된다. 전 분기 대비 소폭 개선됐지만, 예상보다 부진한 탓에 4분기 실적 개선을 고려해도 연간 전망치는 이전 예상치를 밑돌 것으로 보인다.

김운호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하반기에 기대했던 플리스틱 유기발광다이오드(P-OLED) 물량 개선 속도는 기대 이하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화이트(W) OLED 연간 출하규모는 4분기 물량이 3분기보다 많겠지만 수요 부진에 따른 영향이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권태성 기자 tskw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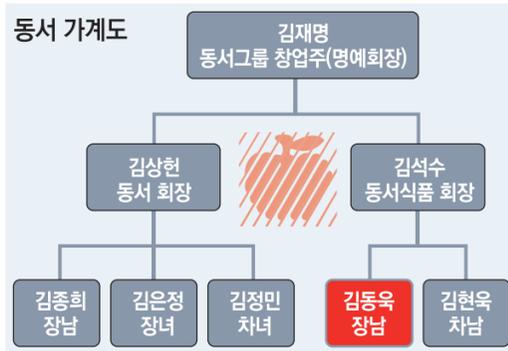
유통가 '3세 경영' 촉각

# '동서식품 장남' 김동욱 전면에... 캡슐커피 '찐경쟁' 예고

인스턴트 조제커피 시대 저물고 팬데믹 거치며 캡슐커피 급부상 자사 브랜드인 '카누 바리스타' 머신 보급 힘 실으며 진두지휘

김석수 동서식품 회장이 장남 김동욱 씨에 미래 신성장동력인 캡슐커피 사업을 맡기며 '3세 경영'을 본격화했다. 네스프레소, 일리 등 선발주자의 압도적인 입지로 인해 현재 동서식품 캡슐커피의 점유율은 미미한 터라, 동욱 씨의 역할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5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김 회장의 장남 동욱 씨는 현재 캡슐커피 브랜드 '카누 바리스타(KANU BARISTA)' 사업을 담당하는 시세팀에서 근무하고 있다. 동욱 씨는 동서그룹 창업자인 김재명 명예회장의 차남인 김석수 회장의 장남으로 1989년생이다. 동서식품은 그룹 지주회사격이자 유일한 상장기업인 ㈜동서의 주력 기업이다. ㈜동서는



국내 캡슐 커피 시장 점유율 (단위: %) ※ 2021년 기준



※ 출처: 한국소비자원

김석수 회장의 형인 김상현 회장이 책임지고 있다. 동욱 씨는 최근 ㈜동서의 지분을 조금씩 늘리며, 그룹 주력사인 동서식품에서 경영 수업을 받고 있다.

동서식품은 ㈜동서와 미국 식품회사 몬텔리즈가 지분을 50 대 50으로 합작한 회사로, 다른 식품 회사와 달리 해외 진출을 하지 못하고 있다. 동서식품이 커피 관련 제품을 수출할 경우, 몬텔리즈와 경쟁 구도가 될 수 있어 사실상 포기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동서식품의 국내 최대 주

력 제품인 인스턴트 조제커피 시장은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스타벅스 등 원두커피 매장 급증과 내수 소비 감소로 인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동서식품 매출도 10년여 간 정체기다. 2011년 매출 1조5000억 원대 돌파 이후 2013년 영업이익 2000억 원대까지 올라섰지만, 이후 10년여 간 변동이 거의 없다. 작년 연 매출은 1조6151억 원을 기록했지만, 영업이익이 1601억 원으로 오히려 줄었다.

반면 캡슐커피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기점으로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캡슐커피 시장 규모는 2018년 1000억 원을 넘어섰고, 지난해 4000억 원대로 4배 가까이 성장했다.

동서식품은 성장하는 캡슐커피 시장에서 새 활로를 찾기 위해, 올해 2월 캡슐커피 브랜드 '카누 바리스타'를 전격 선보였다. 동서식품은 카누 바리스타 커피 머신 2종과 함께 전용 캡슐 8종, 타사 머신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호환 캡슐 6종까지 잇달아 출시했다.

동욱 씨는 동서식품이 신성장동력으

로 삼은 캡슐커피 사업을 사실상 진두지휘하고 있다. 그는 일단 카누 바리스타 머신 보급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머신 보급을 늘리면 캡슐커피 판매량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서면서 머신 판매량 추이는 호조라고 동서식품은 전했다.

다만 선발주자에 밀려 시장 점유율은 미미하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캡슐커피 시장은 네스프레소 등 네스레 제품이 83.2%, 2위는 일리로 13.8%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3% 가운데 카누 바리스타의 점유율은 1~2%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

동서식품 관계자는 "현재 점유율은 밝히기 어려운데 시장 진입 초기 단계인 만큼 향후 성장세를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다만, 동욱 씨의 동서식품 근무 여부와 업무 영역 등에 대해선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말을 아꼈다.

김지영 기자 kij42@

<신동빈 회장 장남>

## 롯데, 연말 인사 '역대급' 전망... 신유열 케미칼 상무 역할 주목

재계순위·계열사 신용도 줄하락 내년 3월 임기 종료 위주 물갈이 조직개편에 HQ체제 해체설 솔솔



경이 좋지 못해 올해 인사시점을 다소 앞당길 것이란 전망도 있다.

내년 3월 임기가 끝나는 대표의 물갈이가 관전포인트다. 김상현 유통군 총괄대표 겸 롯데쇼핑 대표이사 부회장, 정준호 롯데쇼핑 대표, 이영준 롯데케미칼 대표, 최흥훈 호텔롯데 월드사업부대표 등이 대상이다. 다만 이들뿐만 아니라 그룹 차원에서 대대적인 인적쇄신을 할 것이란 이야기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롯데그룹 안팎의 경영위기감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롯데그룹은 작년에 비해 현재 기업가

치가 떨어진 상태다. 롯데그룹은 재계 순위 5위 자리를, 13년 만에 포스코그룹에게 내줬다. 또 롯데 주요 계열사의 무보증사채 신용도 또한 잇달아 하락했다. 국내 3대 신용평가사들이 롯데케미칼 신용등급을 낮춘 탓이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올해 상반기·하반기 VCM(사장단회의)에서 잇달아 기업가치 제고를 강조한 만큼, 강도 높은 물갈이 인사를 통한 조직 쇄신 유력하다. 신 회장은 1월 VCM에서 "기업 가치를 제고하라"고 주문했고, 7월 VCM에서는 "현금흐름과 자본비용 측면의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상반기에 주문한 기업가치 제고가 성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번 인사에서 조직개편을 위한 헤드쿼터(HQ)체제 해체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이완신 HQ총괄대표 겸 호텔롯데 대표이사가 돌연 사임하면서 호텔롯데 HQ 조직이 축소된 탓이다. 롯데는 호텔롯데에 ESG와 재무 기능만 남기고, 나머지를 모두 호텔롯데 내 사업부로 이관했다. 호텔롯데 80여명의 인력 중 60여명이 현업으로 재배치된 상태다.

롯데그룹은 2022년 비즈니스 유닛(BU)에서 HQ체제로 전환했다. 각 계열사를 6개 사업군으로 유형화한 뒤 이를 총괄하는 HQ 조직을 뒀다. 각 계열사에 뒀던 인사, 재무, 기획, 전략 기능을 HQ가 흡수했다. 당시 롯데그룹은 빠른 변화 실행, 혁신 가속화를 위해 HQ

조직을 신설했다고 자평했으나, 오히려 현재는 HQ로 인해 롯데그룹 조직이 더 무거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호텔롯데 HQ 총괄대표 후임자도 공석이고, 조직을 축소하고 인력을 재배치한 건 HQ존재에 대한 고민이 반영된 결과"라고 해석했다.

이런 가운데 유통사업에서 신 회장의 장남 신유열(사진) 롯데케미칼 상무가 어떤 보직을 맡을지도 관심사다. 현재 롯데그룹은 3세 경영 승계를 위한 작업을 착착 진행 중이다. 신 상무가 올해 상반기 VCM에 모두 참석했고 롯데가 역점을 둔 베트남 사업 현장에도 동행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신 회장은 신 상무의 유통사업 활동 가능성을 공언하기도 했다.

유승호 기자 peter@

## '가품 논란' 무신사 솔드아웃, 은근슬쩍 서비스 재개

검수센터 거쳐 정품여부 가리지 않 인력·시스템 개선 없어 우려 여전

무신사의 자회사이자 한정판 플랫폼 '솔드아웃'이 올해 초 중단한 중고 거래 서비스 재운영에 나섰다. 하지만 개인간 거래(C2C) 서비스인 '솔드아웃 트레이드'에서 발생한 가품 논란은 여전히, 신뢰 회복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15일 무신사에 따르면 최근 자회사 에스엘디티(SLDT)가 운영하는 솔드아웃 이 스니커즈 중고거래 서비스 '솔드아웃 중고'를 오픈했다. 올해 1월 솔드아웃의 중고거래 서비스 '솔드아웃 마켓'을 종료한 지 약 10개월 만이다.

솔드아웃 중고는 새상품 거래만 가능했던 기존의 C2C 서비스인 솔드아웃 트레이드와는 달리 이용자들이 보유한 중고

상품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이 차별점이다. 앞서 종료된 사진 인증을 받은 중고거래 사업자가 중고상품을 판매하던 솔드아웃 마켓과 달리, 이 서비스는 개인간 거래가 가능하게 했다.

이에 따라 자신이 보유한 중고 제품을 판매하려는 고객은 절차에 따라 상품 상세 사진을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 후 업로드하면 된다. 가격 거래 후 판매자가 솔드아웃 검수센터로 상품을 보내면, 전문 검수 인력들이 정품 여부를 가린다. 판매자가 올린 사진과 실제 상품 비교 검수를 거쳐 상태 이상 여부도 점검한다.

문제는 이번 솔드아웃 중고 서비스도 앞서 가품 논란이 일었던 솔드아웃 트레이드의 정품 검수 인력, 시스템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이다. 솔드아웃 트레이드에서도 전문 인력이 제품 검수 작업을 거쳤지만, 가품 논란이 여러 차례 불거졌다. 이에 고객

들은 다시금 가품 시비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솔드아웃은 8월에 이곳 저곳 흩어져 있던 검수센터를 통합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물류 효율화만 꾀했을 뿐, 검수 절차를 특별히 강화했다고 볼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고시장을 자주 이용하는 리셀러들 사이에서는 솔드아웃에서 거래된 제품의 가품 논란은 계속 제기되고 있다. 작년 8월 한 소비자가 솔드아웃에서 약 200만 원에 구입한 나이키 운동화를 네이버 '크림'에 재판매하는 과정에서 가품 판정을 받았다. 같은 해 11월 또 다른 소비자도 솔드아웃에서 구매한 나이키 운동화 제품이 크림에서 가품 판정을 받았다.

이에 솔드아웃 사용자들은 구매자와 판매자로부터 수수료까지 받는 업체 측이 가품 거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한다.

문현호 기자 m2h@



G마켓, 삼성·LG가전 예약설치 시작 신세계그룹 계열 이커머스 G마켓은 15일 삼성·LG전자 가전제품의 예약설치 서비스를 선보였다. 삼성·LG전자 공식 인증 판매점 상품 800여 개를 대상으로 한 이 서비스는 고객이 상품 주문 시 희망하는 설치 일자를 지정하면, 제조사 알림특과 설치 기사 '해피콜'을 통해 최종 설치 일자를 확정받게 된다. 삼성전자는 오전 11시 이전, LG전자는 오후 2시 이전까지 각각 결제를 완료하면 다음 날 설치도 가능하다.

사진제공 G마켓

# 광화문 월대·현판 복원... “경복궁, K관광 랜드마크”

## 제 모습 되찾는 광화문

조선 예법·절차 치르던 월대 일제강점기 거치며 사라져 현판, 검정 바탕에 금색으로 서수상 2점 삼성서 기증 받아 “정비사업 지속, 역사성 회복”



경복궁의 정문인 광화문 앞이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했다.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광장에 월대가 공개되고 있다. 월대는 궁궐 등 주요 건물 앞에 설치된 넓은 기단 형식의 대로. 국가적으로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 왕과 백성이 소통하는 장소로 쓰인 곳이다. 광화문 월대는 1920년대 일제강점기 전차 철로 설치 등으로 훼손된 뒤 도로로 사용됐다. 문화재청은 2006년부터 복원 공사를 진행해왔다. 작은 사진은 검은색 바탕에 금색 글자로 복원된 광화문 현판. 신태현 기자 holjjak@

광화문이 옛 모습을 찾았다. 문화재청은 15일 오후 경복궁 광화문 앞 광장에서 월대(月臺)와 현판 복원을 기리기 위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월대는 경복궁의 다른 전각들과 같이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사라졌다. 이날 행사는 지난 2006년 ‘광화문 제 모습 찾기’를 시작으로 그간 추진된 월대와 현판 복원이 마무리됐음을 알리기 위해 열렸다.

월대란 궁궐의 정전(正殿), 도란, 향교 등 주요 건물 앞에 설치하는 넓은 기단 형식의 대(臺)를 말한다. 조선의 예법과 절차, 외교행사 등을 위한 각종 의례가 진행되는 장소였다.

승정원일기(영조 20년)에는 “광화문에서 백성들의 상언을 받도록 명함”이라는 문구가 기록돼 있다. 고종실록 28권에도 “광화문에 나아가 왕세자가 쌀을 하사하는 행사 거행”이라고 쓰여 있다.

이처럼 월대는 궁궐과 백성을 연결해주는 위민(爲民)의 성격도 있다. 임금과 백성이 직접 소통하는 공간이었던 것이다.

문화재청은 복원 과정 중이던 지난 8월에 월대 어도(임금이 다니는 길)의 가장 앞부분을 장식하던 서수상(瑞獸象, 상상속 상서로운 동물상)으로 추정되는 석조각 2점을 고(故) 이견희 삼성그룹 회장 유족 측으로부터 기증받았다. 서수상은 경기 용인시에 있는 호암미술관 야외 정원에 전시돼 있었다.

이번에 기증받은 서수상 2점은 광화문의 해치상, 경복궁 근정전 월대의 서수상 등과 양식적으로도 유사한 면이 있다.

문화재청은 “형태와 규격, 양식 등이 사진 자료 등을 통해 확인되는 과거 광화문 월대와 일치해 고종 재임 시절 월대 건립

당시 사용된 부재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월대와 더불어 복원된 광화문 현판 역시 중요한 역사적 가치를 지닌다. 현판은 기존 흰 바탕에 검은색 글자에서 검정 바탕에 금색 글자로 복원됐다.

문화재청 측은 “광화문 현판 역시 같은 시기 사료를 근거로 복원해 경복궁 전체 복원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복궁의 정문인 광화문(光化門)은 경복(景福), 즉 큰 복이 ‘빛이 되어 백성에게 퍼져 나간다’는 민본사상을 엿볼 수 있다.

이번 복원 행사의 슬로건은 ‘광화문 월

대 새길맞이’다. 새로운 길이 마련돼 우리나라가 문화강국을 향해 나아가자는 염원을 담고 있다.

이날 기념식에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최응천 문화재청장 등이 참석했다. 문화재청 누리집을 통해 사전 신청한 국민 500명도 함께 했다.

기념식은 광화문 완성이 갖는 다양한 의미를 살릴 수 있는 행사로 진행됐다. 광화문과 관련된 이야기를 소개하는 ‘광화문답’을 비롯해 다양한 영상과 공연, 프로젝션 맵핑(미디어쇼)이 참석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행사 후 참석자들은 월대를 걸어 광화

문을 통해 경복궁에 입장했다. 흥례문 광장에서 수문장 도열과 취타대 연주를 감상한 후 근정전에서의 문무백관 도열 등을 관람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경복궁 복원정비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해 경복궁의 역사성을 회복하고 세계적인 K관광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문화재청 측은 “광화문이 온전히 복원됨에 따라 광화문이 갖는 건축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역사·사회·경제적 가치 등 국민께서 우리 전통문화를 풍성히 누리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석주 기자 ssp@

## 전자발찌 착용 강력범죄자 재범률 5년새 절반 이하로

성폭력·살인 등 재범률 0.73% 법무부 ‘신속수사팀’ 관리 한몫 78명 구성... 24시간 모니터링

강간과 살인 등을 저질러 전자발찌를 부착한 가해자들의 재범률이 최근 5년간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권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공받은 ‘연도별 전자감독대상자 재범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가운데 재범을 저지른 이들은 30명으로 재범률은 0.73%다.

전자발찌 부착 대상은 성폭력과 살인, 강도, 미성년자 유괴 등 4대 중범죄다.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들의 재범률은 연도별로는 2019년 90명(1.97%), 2020년 74명(1.68%), 2021년 74명(1.65%), 지난해 45명(0.99%)으로 약 62% 감소했다. 올해 들어서도 이같은 추세는 이어져 8월까지 30명(0.73%)에 그쳤다.

유형별로는 성폭력 재범이 2019년 81건에서 올해(8월 기준) 27건으로 크게 줄었다. 미성년자 유괴는 1건에서 0건, 살인은 4건에서 2건, 강도는 4건에서 1건으로 감소했다.

강력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의 재범률이 크게 감소한 배경에는 법무부의 철저한 관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021년 10월 당시 법무부는 ‘신속수



사팀’을 출범시켜 전자감독대상자들에 대한 감독 강화에 나섰다. 2021년 전과 14범인 강운성이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운성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다.

수사팀은 수사팀장 13명을 포함한 인력 총 78명으로 구성돼 서울과 의정부, 인천, 수원 등 전국 13개 보호관찰소에 설치됐다. 24시간동안 전자감독대상자들을 모니터링하며 준수사항을 위반하는지, 전자발찌를 훼손하는지 등을 상시 확인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 현장출동을 통해 즉각적인 조사를 하고 현행범을 체포하는 방식으로 재범 예방에 나섰다.

올해에는 법무부가 ‘피부착자 소재불명 사건 공개규칙’(훈령)을 개정해 전자발찌 부착 범죄자들의 정보 공개 범위를 넓혔다.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망쳐 체포영장이 발부됐을 경우 보호관찰소장이 사건을 공개할 수 있게끔 했다. 재범 가능성이 큰 만큼 사건 정보를 공개해 신속하게 검거하자는 취지다.

이수진 기자 abc123@

## “19년 만에 의대 정원 확대... 쏠림현상 더 심화될 것”

상위권 학생·N수생엔 기회 이공계 인재양성 차질 우려

정부의 의대 입학 정원 확대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입시업계 등에서는 “상위권 학생에게는 확실히 (의대 입학) 가능성이 커졌다”면서 “의대 쏠림”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15일 입시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논의와 관련해 “상위권 수험생들의 의대 입학 기회가 커질 것”이라며 “지금의 의대 쏠림에 더해 N수생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의대 정원 증원 규모는 당초 예상보다 파격적으로 커질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

다. 정부는 정원 확대가 시작되는 시점을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 시험을 보는 2025년도 대학입시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19년 만에 정원이 늘어나는 셈이다.

교육계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가 이공계 우수인재가 의학계열로 빠져나가는 ‘의대 블랙홀’을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교육계 한 인사는 “자연계열 ‘의대 블랙홀’은 이공계 인재양성에 발목을 잡는 최대 걸림돌”이라며 “의대정원이 확대되면 의대 쏠림이 가속화되면서 우수인재가 의대로 빠져나가 결국 정부의 첨단인재 육성 정책에도 차질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도 “결과적으로 최상위 대학인 서울대나 이공계 특성화 대학을 갈 만한 우수자들이 상당수의 대나약대로 진학할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이공계열 학생들의 의대 이탈은 심각한 상황이다. 올해 서울대 신입생 중 휴학생이 400명을 넘어 5년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3년간 18개 의대 정시 합격자 10명 중 8명(79%)이 재수생·삼수생 등 ‘N수생’이었다.

이만기 유웨이교육평가연구소장은 “의대 문호가 더 넓어지면 고등학생뿐 아니라 현재 이공계 대학 재학생 역시 재수와 반수를 통해 의대에 도전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손현경 기자 son89@

## ‘수원 전세사기’ 전수조사... “예상 피해액 810억”

408건 접수... 대부분 20~30대 경기도, 생계비 100만원 지원

‘수원 전세사기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400여 건의 신고가 접수된 가운데 경기도가 피해 주택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15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수원 전세사기 의혹 사건의 피해 접수 건수는 408건이다.

신고를 접수한 이들은 임대인 정보 씨부부 등으로부터 빌라나 오피스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으로 연령

대는 대부분 20~30대다.

‘전세사기·강통전세 피해자 수원대책위원회(대책위)’를 꾸린 피해자들은 13일 기자회견에서 “피해 주택의 총 세대수는 671세대며 이를 감안할 때 전체 피해액은 810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 씨 부부와 그의 아들, 이들 관련 법인이 소유한 건물은 총 51개이며 3개의 건물은 경매가 예정됐고 2개의 건물은 압류에 들어갔다”며 “예상 피해금액을 알려준 세대는 394세대, 액수는 475억 원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정 씨 일가의 소유주택에 대한 전수

조사에 들어갔다. 정 씨 일가의 주민등록번호와 법인의 사업자번호, 국토교통부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등을 활용해 조사에 나선 방침이다.

이밖에도 경기도는 전세 피해자에 긴급생계비(100만원)를 지원하고 경기도주택도시공사를 통해 긴급 관리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별개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정 씨 일가를 대상으로 사기 혐의로 92건의 고소장이 접수된 상태다. 수원지검도 전담수사팀을 꾸리는 등 전세사기 사건에 대응하고 있다.

김재학 기자 jo801005@



IBK기업은행

금융으로  
만나는 새로운 세상

실력 있는

기업들이

자신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 가장 진화된 금융으로 기업을 앞으로



ESG, 기업승계, 경영 전반의 맞춤형 컨설팅

**IBK 컨설팅**

기업과 인재를 연결하는

**i-ONE JOB**

중소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M&A 중개·주선 지원

**M&A 생태계 조성**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3-3946호(2023.08.29) 유효기간(2024.08.28) • 금융상품 관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서비스)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IBK기업은행은 금융·항응을 받지 않습니다. 윤리경영 위반 사실이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02-729-7490, e-mail : ibkethics@ibk.co.kr)

# 최태원 회장, 일주일새 '파리→서울→파리' 강행군

〈SK그룹 회장〉

9일 엑스포 유치 파리 심포지엄  
주중엔 귀국해 업계 현안 살피고  
에스토니아·카리콤 인사들 회동  
이번주 다시 파리에 CEO세미나  
'이·팔' 리스크 속 경영전략 논의

“작은 나라든 큰 나라든 나라마다 저마다 처한 과제들이 있다. 우리는 나라마다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한다. 누가 다른 나라가 처한 어려움을 고민해 주겠나”(9일 프랑스 파리 파빌리온 가브리엘에서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잇따른 현장 행보에 재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30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를 위해 1주일 새 파리와 서울, 다시 파리를 오가는 강행군을 이어가며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엑스포 개최지 결정 투표가 50여 일 앞으로 다가온 9일 파리로 날아갔던 최 회장은 어느새 귀국해 업계 현안을 살폈다. 12~13일 양일간 방한 중이던 에스토니아와 카리콤(CARICOM·카리브공동체) 각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회동을 하고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SK스퀘어는 13일 에스토니아 기업청과 ICT 투자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SK스퀘어는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이 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한국문화원 내 부산홍보관에서 한덕수(가운데) 국무총리, 박형준 부산시장과 함께 자원봉사자에서 디자인한 '부산 이즈 레디' 티셔츠를 입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왼쪽 사진) 최 회장(오른쪽)이 13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을 찾은 알라르 카리스 에스토니아 대통령을 맞이하고 있다.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이 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한국문화원 내 부산홍보관에서 한덕수(가운데) 국무총리, 박형준 부산시장과 함께 자원봉사자에서 디자인한 '부산 이즈 레디' 티셔츠를 입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오른쪽 사진) 최 회장(오른쪽)이 13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을 찾은 알라르 카리스 에스토니아 대통령을 맞이하고 있다.

에스토니아 국부펀드 '스마트캡(SmartCap)'의 ICT·환경·에너지 분야 혁신기업 투자에 출자할 방침이다.

잠시 쉴 틈도 없이 최 회장은 부산엑스포 유치전과 SK CEO 세미나 참석을 겸해서 다시 파리로 갔다. SK CEO 세미나는 6월 확대경영회의와 8월 이전포럼에서 논의된 사업 현황과 과제들을 점검하고, 내년 경영전략을 공유하는 자리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영향과 고환율 등 거시경제 악화와 지정학적 리스크 부상에 따른 대응전략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최 회장은 6월 열린 '2023 확대경

영회의' 기조연설에서 “지금 우리는 과거 경영방법만으로는 살아남기 어려운 글로벌 전환기에 살고 있다”며 “미·중 경쟁과 이코노믹 다운턴, 블랙스완으로 부를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위기 변수들은 물론 기회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시나리오 플래닝 경영을 고도화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SK의 주요 사업 분야에는 정유와 석유화학도 포함돼 있어 현 상황을 심각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다. 전쟁 장기화로 중동 지역 산유국에까지 여파가 닿아 원유 수급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산유국이 아닌 만큼 석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나 미국과 이란 간의 대리전 양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마스는 중동의 반(反) 이스라엘 연대와 밀착하며 결사항전으로 맞서는 가운데 이슬람 시아파 맹주인 이란이 이스라엘의 전쟁범죄를 명분으로 개입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확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편 최 회장은 이달 말 아프리카 국가들도 방문할 예정이다. 11월에는 대부분 파리에 머물며 국제박람회기구(BIE) 회원국 대사들을 마지막으로 만나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이동욱 기자 toto@

‘한국계’ 터너 美 북한인권 특사  
첫 해외일정으로 16~18일 방한

줄리 터너(사진)가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로 취임하고 해외 첫 일정으로 다음주 서울을 찾는다.



미 국무부는 13일(현지시간) 터너 특사가 이날 취임 선서를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터너 특사는 취임 후 첫 해외 일정으로 오는 16~18일 서울을 방문한다. 그는 방한 기간 정부 관계자, 시민사회 단체, 탈북자, 언론인 등을 만나 북한 인권 증진 및 이산가족 상봉 촉진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국무부는 밝혔다.

터너 특사가 활동에 들어감에 따라 2017년 1월 로버트 킹 전 특사 퇴임 이후 6년여간 지속됐던 미국의 북한인권특사 공백이 해소됐다. 북한인권특사는 미국 정부의 대북 인권정책 수립과 집행 전반에 관여하는 대사급 직책으로, 2004년 10월 발표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신설됐으나 그동안 공석이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과장인 터너를 특사로 지명했다. 터너 특사는 지난 5월 상원 청문회에서 자신을 “한국계 미국인 입양아”로 소개하면서 “저를 환영해준 조국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어릴 적 꿈이었다”고 말했다. 또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 “북한의 인권 침해와 유린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 책임을 묻기(accountability) 위해 뜻을 같이하는 정부와 협력할 것”이라는 활동 계획을 밝혔다. 문현호 기자 m2h@

## 크라운해태, 18번째 '창신제'



크라운해태제과는 13일부터 사흘간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제18회 창신제(創新祭)' 공연(사진)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올해로 18번째 열린 창신제는 '옛 것을 바탕으로 새로움을 창조한다'는 '법고창신(法古創新)'을 주제로 전통을 계승하고 현대음악을 아우르는 대형 공연이다. 국내 민간기업이 주최하는 전통음악공연 중 최대 규모다.

지난해 이어 올해도 한국 전통음악의 최고 백미로 꼽는 '수제전(壽齊天)'이 3일 동안 공연됐다. 수제전의 전년 역사를 연주와 노래, 춤까지 합쳐진 뮤지컬 형태의 종합예술로 즐길 수 있는 초대형 공연이 펼쳐졌다.

김지영 기자 kiy42@·사진제공 크라운해태제과

## 창립 99주년 삼양그룹, 창업주 생가 찾아 '헤리티지 워킹'

삼양그룹은 13일 창립 99주년을 맞아 창업주 생가가 있는 전라북도 고창에서 '헤리티지 워킹' 행사(사진)를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사전 신청한 임직원 200여 명이 참석했다. 임직원들은 먼저 고창군 부안면에 있는 창업주 고 김연수 회장의 생가를 방문했다. 김 창업주는 1896년 이곳에서 태어나 1907년 전북 부안으로 이주하기 전까지 거주했다. 1977년 고인이 자비를 들여 옛 모습 그대로 복원했다. 전라북도도는 고택의 역사와 원형을

보존하기 위해 전라북도기념물 제39호로 지정했다.

임직원들은 이후 '둘레길 트레킹'에 나섰다. 고창갯벌식물원부터 김연수 회장이 간척사업으로 축조한 해리염전(고창군 심원면 일대)까지 총 6.8km 둘레길을 함께 걸었다. '99' 숫자와 관련된 참가자 찾기, 삼양그룹 경영방침을 표현한 인증사진 찍기, 삼양그룹 O·X퀴즈 등도 진행했다.

김윤 삼양그룹 회장은 “전북 고창은 김연수 회장의 산업보국 뜻이 깃든 곳이자



지금의 삼양그룹을 있게 한 토대가 되었던 의미 있는 터전”이라면서 “오늘의 체험을 바탕으로 도전정신과 개척정신을 일깨워 새로운 100년을 위해 힘차게 나아가자”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kiy42@·사진제공 삼양그룹

## 신세계백화점, 전국 청년 미술작가 발굴... 지역별 특별전

신세계백화점은 전국의 역량 있는 청년 미술 작가들을 발굴해 지역별 특별 전시회를 연다고 15일 밝혔다.

광주신세계갤러리에서는 13일부터 31일까지 지난해 광주신세계미술제 대상 수상자인 정경자 작가의 개인전을 연다. 대구신세계갤러리에서는 13일부터 20일까지

‘젊은대구작가들’ 전시를 열고 대구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5명의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소개한다. 신세계 센텀시티점은 부산문화재단과 함께 부산 청년예술가 3인전 ‘관계에 대하여’를 20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펼친다. ‘Next Chapter(다음 단계)’라는 주제로 5일부터 다음달 5일



까지 총 50여 작가의 200여점 작품을 소개 중인 신세계 본점의 블라썸아트페어(사진)도 만나볼 수 있다.

김유연 기자 kyy0907@·사진제공 신세계백화점

## 한국 단색화 거장 박서보 화백, 암투병 끝 92세로 별세

‘단색화 대가’ 박서보(본명 박재홍) 화백이 14일 별세했다. 향년 92세.



1931년 경북 예천에서 태어나 흥익대 서양 회화를 졸업한 박 화백은 무수히 많은 선을 긋는 ‘묘법’(Ecriture·描法) 연작으로 ‘단색화 거장’으로 불렸다. 1967년 시작한 묘법 작업은 연필로 끊임없이 선을 긋는 전기 묘법시대(1967~1989)를 거쳐 한지를 풀어 물감에 건 것을 화폭에 올

린 뒤 도구를 이용해 긋거나 밀어내는 방식으로 작업한 후기 묘법시대, 2000년대 들어 자연의 색을 작품에 끌어들이는 유채색 작업까지 변화를 거듭해 왔다.

박 화백은 이러한 작품 세계를 바탕으로 한국 현대미술에 한 획을 그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양의 모더니즘을 받아들여 이되 이를 동양의 정신과 섞어 우리만의 새로운 현대미술을 만들어냈다.

박 화백은 국내외에서 수많은 개인전을 열었다. 미국 뉴욕현대미술관과 구겐하임미술관, 시카고 아트인스티튜트, 일본

도쿄도 현대미술관, 프랑스 파리 퐁피두 센터, 홍콩 M+미술관 등 세계 유명 미술관이 고인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박 화백은 아흔을 넘긴 나이에도 왕성한 작업활동을 이어왔다. 올해 8월 부산 조현화랑에서 개인전을 여는 등 최근까지 활발히 활동했다. 앞서 그는 올해 2월 폐이스트북에 폐암 3기 진단 사실을 밝히며 “캔버스에 한 줄이라도 더 긋고 싶다”고 밝혔다.

유족으로는 부인 윤명숙 씨와 2남 1녀가 있다. 빈소는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1호실에 마련된다. 발인은 17일 오전 7시다. 문현호 기자 m2h@

## 부음

▲박황철 씨 별세, 최명옥 씨 남편상, 박진영(KBS 보도본부 기자) 씨 부친상, 최지영(한국시티은행 수석) 씨 시부상 = 14일,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6호실, 발인 16일 오후 2시, 02-2072-2022

▲박용준 씨 별세, 박영숙(박치과원장)·영현·영세씨 부친상, 정승규(제일이비인후과 원장)·조용택(폴리뉴스 회장·전 KTCR부문 BS추진실장)·임용우(전 서울과학고 교장) 씨 장인상 = 14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20호실, 발인 17일 오전 6시 30분, 02-3410-3151

## KT, 축구 국가대표팀 후원 4년 더... 2027년까지 연장



왼쪽부터 KT 커스터머사업본부 구강분 본부장, 커스터머부문 이현석 부문장과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 김정배 부회장. 사진제공 KT

KT가 2027년까지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파트너사와 후원을 지속한다.

KT는 남자축구 국가대표팀이 튀니지와 공식 평가전을 가진 13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대한축구협회와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파트너 조인식’을 갖고 2027년까지 후원 협약을 연장했다고 15일 밝혔다. KT는 2001년부터 23번째 축구 국가대표팀을 지속해서 후원해오고 있으며, 이번 협약으로 오는 2027년까지 후원을 이어가게 됐다. 후원 기간 월드컵, 올림픽, 아시안컵 등 글로벌 축구 이벤트가 열린다.

KT는 축구 국가대표팀의 의류(트레이닝복) 광고권과 플레이어 에스콰드 운영권 등의 독점적 권리를 갖게 된다. 이밖에도 공식 파트너에게 주어지는 경기장 내 보드광고권, 대표팀 초상권, 엠블럼 사용권 등 다양한 권리도 활용할 수 있다. 이에 KT는 플레이어 에스콰드 운영, 축구 국가대표 에디션 폰(단말) 출시, 파주 NFC에서 진행한 키즈랜드 캠핑 등 고객들에게 다양한 축구 마케팅을 진행해왔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마감 후

“삼성·SK·현대차 같은 기업들이 준비된 나라, 수십년간 어려운 조건에서도 복원력을 보여준 나라, 지구촌에 ‘한국이 했으니 우리도 한다’는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송영록  
산업부 차장

‘노동의 종말’, ‘엔트로피’ 등을 쓴 세계적인 석학

제러미 리프킨 미국 경제동향연구재단 이사장이 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왜 한국? 왜 부산?’ 주제의 심포지엄에서 한 연설의 일부다.

이날 객석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들이 대거 모습을 드러내 엑스포 표심을 흔들었다. 이외에도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 위원장, 하범중 LG 사장, 정탁 포스코인터내셔널 부회장, 황진구 롯데케미칼 대표이사, 신현우 한

계 곳곳에 있는 네트워크를 활용해 홍보에 나섰다.

국가적인 행사에는 언제나 재계 총수들이 함께했다.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주 주도로 1988년 서울올림픽 유치에 이뤄졌고, 2002년 한일월드컵은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을 중심으로, 고 최중현 SK 선대회장이 게이단렌(일본경제단체연합회) 회장에게 파트너십을 제안해 성사됐다.

삼수의 도전 끝에 유치가 성공한 평창동계올림픽은 고 이견희 삼성 선대회장의 활약이 없었으면 유치가 힘들었을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위기의 순간에도 기업의 힘은 컸다. 울여름 있었던 새만금 잼버리가 파행을 면할 수 있었던 것은 기업들의 지원과 봉사 덕분이었다. 코로나 위기 당시에도 기업은 생활치료시설을 제공하

국가적 행사엔 ‘그들’이 있었다

화에어로스페이스 사장, 가삼현 HD현대 부회장 등이 현지에서 총력전을 펼쳤다.

구광모 LG그룹 회장도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글로벌 교섭 활동을 적극 이어가고 있다. 구 회장은 지난달 26일 열린 LG 사장단 워크숍에서도 엑스포 유치 총력 지원 방침을 공유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지난해 9월 추석 연휴를 반납하고 윤석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멕시코와 파나마 대통령을 접견했다. 이 회장은 “부산엑스포는 더 나은 인류의 미래를 위한 비전과 혁신 기술을 제시하는 장이 될 것”이라며 지지를 요청했다. 이 회장은 지금도 다양한 인맥을 활용해 글로벌 교섭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 총수들이 엑스포 유치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이들이 부산엑스포 유치에 본격 나선 것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난해부터다. 부산엑스포 유치를 국가적 어젠다로 결정하며 재계에 구원 요청을 했다. 재계 총수들은 세

고, 마스크 제조업체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활동으로 위기 극복을 도왔다.

이같은 기업 희생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선 기업에 힘을 실어주는 커녕 옥죄고 있는 게 현실이다. 자신들이 필요할 땐 손을 내밀지만, 정작 기업이 필요한 일에는 손을 뿌리친다.

당장 21대 마지막 정기국회를 앞두고 계류 중인 규제혁신 법안이 수도룩하다. 게다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용노동 관련 법안 중 기업 활동을 지원하거나 규제 해소 등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법안은 9%에 불과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신산업 육성을 위한 ‘킬러규제 혁파’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동시장 유연화와 균형 있는 노사관계를 위한 입법과제를 제안했다.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세계 곳곳의 전쟁 등 우리나라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크다. 기업 경제활동을 옥죄는 규제를 없애고 자유롭게 기업이 일할 수 있게 해 줘야한다. syr@

타산지석 삼을 ‘이스라엘 아이언돔’

아이언 돔(Iron Dome)은 단거리 로켓을 방어하는 이스라엘 전역에 배치된 첨단 이동식 대공방어체계다. 각 포대에는 타미르 요격미사일이 장착된 발사대, 탐지 및 추적 레이더시스템과 지휘통제체계 등이 포함돼 있다. 능동전자주사 위상배열(AESA) 레이더는 최대 1100개의 목표물을 탐지 및 추적할 수 있다.

타미르 요격미사일은 길이 3m, 직경 16cm의 소형으로, 여러 개의 핀(날개)과 전자광학센서를 장착하고 있어 뛰어난 기동성을 가진다. 요격미사일은 공격해오는 로켓에 1m 이내로 접근하여 폭발시킨다.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도록 설계된 미사일방어체계와 달리 아이언 돔은 주로 저고도에서 비행하는 무유도 로켓을 요격한다.

아이언 돔은 로켓의 궤적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장소나 인구밀집지역 같은 보호구역에 위협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로켓이 주요 보호구역을 공격하는 것으로 분석되는 경우에만 공중에서 파괴한다. 아이언 돔은 2011년 3월 첫 배치 이후 여러 차례 업그레이드돼 지난 12년 동안 공격해오는 로켓의 약 90%를 요격하는 놀라운 기록을 갖고 있다. 특히 소규모 공격에 효과적이었다.

하지만, 다른 미사일방어체계와 마찬가지로 아이언 돔도 한계는 존재한다. 10월 7일 하마스의 로켓공격 규모는 전례가 없을 정도로 컸다. 단 20분 동안에 2200발 이상의 로켓을 동시다발적으로 발사하는 포화공격을 통해 아이언 돔을 압도하며 대응능력을 무력화했다.

하마스는 5000여 발을 발사했다고 주장했다. 2년 전의 공격에서 하루 최대 470발(시간당 평균 20발)을 발사하는 수준에서 시간당 수천 발을 발사

장영근의 우주 속으로

장영근  
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  
前 한국항공대 교수



하는 수준으로 발전했다.

아이언 돔이 일부 로켓을 요격했지만 일부는 방어체계를 뚫고 텔아비브 인근까지 비행해 피해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언 돔 요격미사일 1발의 가격은 4만~5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마스의 소형로켓 1발이 수백 달러 수준임을 감안할 때 공격에 대응하는 방어에는 수십 배의 비용이 소

재래식 대량포화에 ‘첨단’ 무너져  
北 장사정포, 하마스보다 더 강력  
신구무기 동시다발기습 대비해야

요된다. 비용 대비 효용성이 낮다는 의미다.

이는 모든 미사일방어체계가 갖는 고유의 한계다. 또 다른 제한사항은 아이언 돔에 한번에 제한된 수의 요격미사일만 탑재할 수 있고, 요격미사일 발사 후 재장전을 위한 시간이 길다는 것이다. 동시다발적으로 발사되는 수천 발의 로켓포 공격에는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

이번 포화공격에 따른 아이언 돔의 실패를 보면서 만일 북한이 시간당 1만 발 이상의 장사정포로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한다면 우리 군은 어떻게 대응할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이 최전방에 배치한 240mm 방

사포(다연장로켓포), 170mm 자주포 등 대남 타격용 장사정포는 1000여문 이상으로 알려져 있고 시간당 1만여 발 이상 발사가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북한의 장사정포와 미사일 역량은 하마스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수준이다. 북한은 지난 10여 년 동안 다양한 유형의 방사포와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방사포 및 미사일체계 운용 검증, 특히 혼합발사와 동시발사를 통한 우리 군의 요격체계 무력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시험해왔다. 이러한 비대칭 방식의 동시다발적 발사는 정밀유도 미사일과 로켓포를 구분하기 어렵게 만들며 우리 군의 방어체계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

우리 군은 현재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으로부터 수도권 등을 방어하기 위해 한국형 아이언 돔인 ‘장사정포 요격체계(LAMD)’를 개발하고 있다. 시간당 1만 발 이상의 장사정포 공격을 동시다발적으로 해온다면 현재 개발 중인 장사정포 요격체계가 얼마나 효용성을 가질지 의문이다. 구형과 신형의 단거리미사일과 로켓포를 혼합해 동시다발적으로 도발한다면 더욱 대응이 어려울 것이다.

현재로서는 아무리 많은 고성능 및 고비용의 대공방어체계를 구축한다고 해도 한계는 존재한다. 향후 미사일과 로켓포에 대한 방어를 훨씬 더 치명적이고 비용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신기술이 개발될 수는 있다. 하지만, 원래 의도했던 것만큼 빠르거나 저렴하게 하는 데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다.

우리 군은 북한의 하이브리드 방식 기습공격에 대한 모든 시나리오를 분석해 실전에 대비한 훈련을 포함해 기존 전력의 전술적 활용방안을 찾고 정보획득 능력을 시급히 제고해야 한다.

이투데이, 밀투데이

☆ 오스카와일드 명언

“문학과 저널리즘의 차이점은 저널리즘은 읽을 가치가 없다는 것이고 문학은 읽히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일랜드 시인, 소설가 겸 극작가이자 평론가. 미모의 청년 주인공 도리언이 쾌락의 나날을 보내다 악덕의 한계에 이르러 파멸한다는 이야기이다. 동성연애 혐의로 2년 동안 레딩 교도소에 갇혀 있는 동안 참회록 ‘옥중기(獄中記)’도 남겼다. 그는 오늘 출생했다. 1854~1900.

☆ 고사성어 / 지족상락(知足常樂)

‘만족할 줄 알아야 늘 즐겁다’라는 말. 노자(老子) 도덕경(道德經)에서 유래했다. ‘명예와 생명 어느 것을 더 사랑하는가. 생명과 재물 어느 것을 더 중히 여기는가. 이 중 하나를 얻고 하나를 잃는다면 어느 쪽이 더 고통스러운가. 이런 까닭에 애착이 크면 큰 대가를 치르고, 많이 쌓아두면 반드시 크게 잃는다. 만족할 줄 알면 욕되지 않고, 적

당히 멈출 줄 알면 위태롭지 않다. 그러기에 오래도록 편안할 수 있다[知足不辱 知止不殆 可以長久.]”

☆ 시사상식 / 앵커기업(anchor business)

먼저 입주한 기업으로 인해 기업의 연쇄 입주가 일어날 때 먼저 입주한 기업을 일컫는다. 순화어는 선도기업이다. 특정 산업이나 지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으로 당해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 우리말 유래 / 주변머리

‘주변’은 일을 주선하고 변통하는 재주를 가리키는 말이다. 뒤에 붙은 ‘머리’는 그 뜻을 강조하는 접미사다. ‘주변머리’는 ‘주변’의 속된 표현으로 일을 이끌어 가거나 처리하는 데 용통성을 발휘하는 재간을 말한다.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 삶 연구소장

“오히려 국정감사 기간이 제일 한가하다.”

국감 시즌이라 바쁘겠다는 질문에 금융권 관계자들이 한 답변이다. 내년도 사업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는 금융사도 있었다. 이는 국회 정무위원회가 증인·참고인 명단을 공개하기 전과 사뭇 다른 분위기다.

올해 유독 많았던 은행 직원들의 횡령과 금융사고로 금융권의 내부통제 문제가 불거지면서 업계에는 긴장이 맴돌았다. 국감에서 금융지주 회장이 줄줄이 소환돼 집중 포화를 맞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무위가 증인·참고인 명단을 공개하자 ‘맹탕 중 맹탕’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올해 금융권을 달궜던 이슈와 관련된 증인들이 대거 빠지면서다. 금융지주 회장은 고사하고 이들을 대신할 수 있는 은행장까지 증인 채택 리스트에서 제외됐다.

노트북 너머

손희정  
금융부



우려는 현실이 됐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김주현 금융위원장에 대한 질의가 대부분이었다. 12일 열린 금융감독원 국감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은행권에서 눈에 띄는 명단은 내부통제 부실 문제와 관련한 7개 은행의 준법감시인 정도다.

국감에 기업인을 부를 수 있다. 국민을 대신해 기업 잘못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는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등 주요 은행장들이 국감에 불려나왔다. 당시에 대규모 횡령사고와 이상 외화

송금 등 내부통제 부실에 대한 문제를 묻기 위한 것이었다. 정무위원들의 날선 질문에 은행장들은 연신 ‘죄송하다’, ‘시정하겠다’는 말과 함께 향후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국감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들은 오너가 참석한 국감에서 기업 잘못을 지적했을 때 좀 더 확실한 시정이 이뤄진다고 한다. 국회가 ‘호통’을 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은행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의 횡령사고가 터졌다. ‘한가함’을 보여주고 있는 올해 국감이 지나면 무엇이 남을까.

앞으로 증인·참고인이 추가될 여지는 있다. 27일 예정된 금융위와 금감원의 종합감사를 위해 20일까지는 추가로 증인 및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 이번 명단에서 빠진 금융지주 회장들이 새로 추가될지 업권의 시선이 집중돼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 부채 청구서는 가혹하다

“지금 같은 주식시장이 기회의 장입니다. 우선 3개월 동안 유료회원 가입비 300만 원만 내고 따라오시면 그 이상 수익을 보실 수 있어요. 저희 유튜브 채널 구독자를 다 합치면 수십만 명이고, 유료회원들이 함께 움직이니까 믿고 투자해보세요.”

‘빚투’(빚을 낸 투자) 게이들이 증시로 몰려들자 ‘주식리딩(leading)방’이 활개를 친다. 리딩방이 투자 사기의 온상이 되자 관계 당국도 칼을 뽑아 들었다. 이복현 금감원장과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8월 불법 리딩방 수사 공조를 빼대려 한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은 6월 리딩방 단속반을 설치해 암행 점검을 확대 실시했다”면서 “기회가 되면 3개 기관(금감원, 검찰, 경찰)이 ‘플러스알파’로 (조사하는) 장이 진행될 것”이라며 엄단 의지를 밝혔다. 이튿날인 17일에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불

공정거래, 시장 교란, 리딩방, 허위 품문 등을 특별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빚투에 대한 우려도 잇지 않았다. 이복현

원장은 금감원 임원회의에서 테마주 관련 주식 시장 급등락에 대해 “단기간에 과도한 투자자 몰림, 레버리지 증가, 단타 위주 매매 등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테마주 투자 열기에 편승한 증권사들의 공격적인 신용융자 확대는 ‘빚투’를 부추길 수 있으므로 경쟁이 과열되지 않도록 관리해달라”고 요청했다. 투자자들이 흘러들지 말아야 한다.

증시 분위기와 무관하게 빚내서 투자하는 ‘빚투’가 다시 성행하고 있다.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사는 신용융자 잔액은 여러 달째 20조 원 주변을 맴돈다. 주식 ‘빚투’는 과열 현상을 보이는 코스닥과 코스피 시장을 가리지 않는다. 지난해 말 7조7600억 원이던 코스닥 신용융자 잔액은 9조 원대를 넘나든다. 시가총액이 5배인 유가증권 시장과 비등한 수준이다. 위험을 감수한 공격적 투자자 전례 없는 수준으로 확산한 것이다.

### 텍스트 시각

김문호  
부국장 겸 자본시장부장



게다가 주식 신용거래를 하면서도 그 위험성을 모르는 투자자들도 적지 않다고 한다. 신용거래는 주가가 오를 때는 수익을 크게 올려준다. 하지만 주가가 떨어져 증권사가 요구하는 수준 이상으로 용자금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지 못하면, 증권사는 빌려준 돈을 회수하기 위해 담보로 잡은 주식을 강제로 팔아버린다. 주가 하락기에 많은 투자자가 이런 ‘반대 매매’를 당하게 되면 시장 전체가 더 가파른 하락세에 빠진다.

실제 미국의 금리 상승 여파로 주식시장이 흔들리고, 증동에 전운이 감도는 상황이 펼쳐지자

위탁매매 미수금 대비 반대매매 금액은 현재 500억 원대로 늘어났다. 주가가 장기간 상승세를 이어갈 때는 좋지만 하던 ‘빚투’가 감춰진 발톱을

드러낸 모양새다.

‘아차!’ 하는 생각이 들면 때는 늦는다. 발을 빼려 해도 뺄 수가 없다. ‘빚투라도 해서 한몫 잡아보자’ 하고 시작한 주식투자가 ‘원금이라도 건져야지’라는 처절한 싸움으로 바뀐다.

북유럽의 스칸디나비아 반도에는 ‘나그네쥐’로 불리는 레밍(lemming)이 있다. 개체 수가 늘어나면 집단으로 이동하는 습성을 지녔다. 선두를 따라 직선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절벽을 만나면 그대로 뛰어내려 줄줄이 바다나 호수에 빠져 죽기도 한다. 뚜렷한 주관 없이 맹목적으로 타인의 선택을 따라가는 집단적 편승 효과를 ‘레밍 신드롬’ ‘레밍 효과’라고 부르는 이유다.

활개를 치는 테마주에 편승해 한몫 챙기려는 게이(개인투자자)를 보자니 걱정이야. ‘묻지마 투자’의 행렬을 보면 레밍 신드롬이 떠오른다. 지나친 걱정이었으면 한다. kmh@

### 증시에 ‘빚투’ 성행... 리딩방 활개

### 하락장 ‘반대매매’에 시장 악순환

### ‘묻지마 투자’ 행렬 기우로 끝나길

위탁매매 미수금 대비 반대매매 금액은 현재 500억 원대로 늘어났다. 주가가 장기간 상승세를 이어갈 때는 좋지만 하던 ‘빚투’가 감춰진 발톱을

### 노무, 특!

##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일까

통상임금의 개념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서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금액 또는 도급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실무에서 특정 명칭의 수당 자체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는지에 관한 질의를 자주 받게 된다. 이때 통상임금인지 여부는 지급 수당의 명칭보다는 지급조건 및 정황과 운용실태 등 객관적 성질을 기반으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의 3가지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판단하고 있다.

‘정기성’이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일률성’이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한다. 이때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한다. 이때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근속기간 등과 같이 소정 근로의 가치평가와 관련된 조건이어야 한다. ‘고정성’이란 통상임금이 초과근로수당 산정 등을 위한 기초임금이

로 실제로 초과근로 등을 제공하기 전에 미리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전확정성을 의미한다. 이러한 판단기준은 다양한 케이스에서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수의 상여금 판례에서 통상임금인지 여부의 판단이 달라지는 이유는 판단의 원칙은 동일하나 구체적인 통상임금 지급사정과 관련하여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의 요건 중 일부를 충족하는 사실관계인지, 모두를 충족하는 사실관계인지의 법해석의 차이로 케이스별로 독립하여 판단되기 때문이다.

과거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재직자 조건’이 있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최근 ‘일할 정산’의 규정 없이 ‘재직자 요건’이 있는 임금에 대하여 통상임금성을 긍정하고 있는 것을 볼 때 향후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정기상여금의 범주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 향후의 후속판결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노무법인 해담 서울지사 대표 오수영 노무사

### 사설

## 18년째 묶인 의대 정원, 대폭 확대 불가피하다

정부와 여당이 2006년 이후 18년째 3058명으로 묶인 의과대학 정원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 주중 의대 정원 확대 규모와 방식 등을 직접 발표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국가적으로 그만큼 중차대한 과제라는 뜻이다.

초등학생 의대 준비반이 사교육 시장을 달굴 정도로 ‘의대 열풍’이 거센데도 정작 병원 현장에선 의사가 태부족이다. ‘응급실 뺑뺑이’ 현상 등도 만연하고 있다. 필수의료 분야를 비롯한 의료계 전반 인력난이 심해져 의대 증원은 더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된 것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의 반발로 2020년 잠정 중단됐던 증원 논의는 올해 의료현안 협의체,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 운영을 계기로 재개됐다. ‘2025학년도 입시부터 확대한다’는 방향에 대한 합의도 이뤄졌다고 한다.

남은 쟁점은 증원 규모다. 정부는 1000명 안팎 늘리는 방안을 선호하는 반면 의협 등은 대폭 확대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집단 반발과 충돌 가능성이 없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국가적으로 가야 할 방향은 자명하다. 이번 기회에 적어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의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증원을 해야 한다.

의협은 의료수가 개선 등 의사가 필요한 곳에 배치되도록 하는 정책부터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무엇이 먼저인지 순서를 놓고 다툴 단계는 한참 지났다. 객관적인 의료 통계가 증원의 시급성을 말해준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임상 의사 수

는 지난해 기준 인구 1000명당 2.5명이다. 한의사를 제외하면 2.1명으로 준다. OECD 평균 3.7명에 한참 못 미친다. 의대 졸업자 수도 마찬가지다. 2021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7.3명으로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이다. 의사 절대 수가 부족하니 곳곳이 의료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 특히 지방 의료 체계는 붕괴 직전이다. 강원 영동 지역에선 심장내과 전문의를 찾기 어려워 야간·공휴일엔 대관령을 넘어야 목숨을 건질 수 있다고 한다. 영동 지역만의 얘기가 아니다.

인구 6700만 명대인 영국은 2020년 의대 42곳에서 모두 8639명의 신입생을 뽑았다. 국내 의대 정원의 3배에 가깝다. 의사 수가 1000명당 4.5명인 독일은 의대 정원을 매년 5000명씩 증원하기로 했다. 의료 인력 사정이 한결 나은 선진국도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계속 의료 인력을 늘려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와는 발상부터 다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50년 기준 2만 2000명 이상의 의사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봤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25년 5516명, 2030년 1만4334명, 2035년 2만7232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다. 통상 의사 한 명을 키우는 데 약 10년이 필요하다. 한국 의료 시스템은 이미 무너졌다는 끔찍한 경고가 아닌지 살필 일이다.

의협은 우리 보건·의료 여건을 직시해야 한다. ‘밥그릇 싸움’은 금물이다. 정부 책임도 막중하다. 의료계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상생의 길을 열어야 한다.

## 부동산산업 변혁 이끌 생성형AI

작년 AI 전 세계 시장 규모는 1366억 달러로 증가했으며, 향후 10년 안에 1조8000억~2조6000억 달러로 급증할 거라는 전망(ULI)이 나오고 있다. 금융보험 분야에서 AI는 계좌 조회, 대출 신청, 사기 탐지, 신용 점수 모니터링 등에서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2030년까지 금융 보험의 AI 활용 시장 점유율은 34%로 전망된다.

AI 기술 중에 생성형 AI(generative AI)가 최근 들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생성형 AI와 일반 AI는 AI 시스템의 동작 및 작동 방식에 따라 구분된다. 생성형 AI는 입력 데이터에 따라 창조적이고 다양한 결과물을 생성한다. 주로 이미지, 텍스트, 컴퓨터 코드, 비디오, 기타 형태의 출력물 등 콘텐츠 제작에 사용된다.

### 부동산 시장 데이터 분석 능력 높아져

생성형 AI는 일반적으로 텍스트, 음성, 이미지와 같은 데이터를 입력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콘텐츠나 응답을 생성하는 AI다. 학습 모델을 사용해 입력 데이터로부터 창조적인 결과를 만들어 글을 쓰거나, 이미지 생성, 작곡 등을 한다. 부동산 산업에서 생성형 AI의 활용이 커지고 있다.

우선 개발자, 투자자, 보험사 등을 위한 전용 플랫폼이나 서비스를 개발해 리드(잠재고객) 생성, 대량의 데이터 활용, 미래기회 식별 등을 돕는다. 다양한 데이터 세트의 분석 결과에 접근성을 높여주어 통찰력을 제공한다. 법률 문서의 파악, 요약, 계약서 초안 작성에 사용된다.

현재와 미래의 자산 가치를 평가하고 투자 시뮬레이션도 제공한다. 부동산 잠재고객의 니즈를 파악해 옵션을 제공하고, 부동산 가상방문 체험도 가능하다. 위치 지리 공간을 위해 다양한 데이터에서 패턴과 지표를 계산한다. 설계 엔지니어링 건설에서는 생산성 향상과 공식적 반복적 문서작성 과정을 처리한다.

### 플러자

최민성  
델코리얼티그룹 회장



앞으로도 부동산 산업에서 생성형 AI가 하는 역할은 계속 강화될 전망이다.

우선 대량의 부동산 시장 데이터 분석 능력이 업그레이드돼 가격과 수요 예측, 투자 기회 식별 등이 개선된다. 알고리즘과 딥러닝의 발전으로 예측 능력이 향상되면서, 부동산 시장 전망이 체계화될 수 있다. 부동산 거래 과정도 자동화돼 디지털 계약, 문서 관리, 정보 검색 등에서 거래 효율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부동산 시장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노코드(no-code) 플랫폼이 이미 채택되기 시작했다. GPT, LLaMA, BERT 등 노코드 플랫폼이 활동을 시작하면서, 프로그래밍 기술이 없는 개인도 소프트웨어 앱을 만들 수 있다. 채팅 기반의 챗GPT는 마케팅 캠페인용 카피 제작, 이메일 초안 작성 등 작업 간소화로 콘텐츠 제작에 혁신을 가져왔다.

### 부동산 투명성 제고에 주도적 역할 기대

부동산 정보업체들도 자체 AI 기반 도구를 출시하고 있다. JLL은 엔비디아와 협업해 생성형 AI를 통합한 JLL Azara 플랫폼을 운영한다. 부동산 회사의 의사결정과정에 최적화, 데이터 분석에 의한 포트폴리오별 거래 관리와 리드 생성 등을 지원하며, 휴대폰 앱으로도 가능해진다.

생성형 AI는 부동산 산업의 변화와 요구에 부합하는 솔루션으로 거듭나고 있다. 더구나 부동산의 투명성, 데이터 정리, 리드 생성, 거래 개선, 프라이버시, 보안, 윤리 등에서도 주도적 역할이 기대된다.

## 이투데이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발행·인쇄인 김상우	편집인 김덕현	주필 이승현	편집국장 박성호
2010년 10월 4일 창간<일간>	홈페이지 www.eltoday.co.kr	주소 우편번호 06044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556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84-1003	광고문의 (02)799-2668	구독·배달 (02)799-2684
구독료 월 1만5000원 1부 800원	2006년 4월 27일 등록번호 서울 가 00344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싱싱하고 맛있는 게  
천지백귀라네  
[부산 자갈치시장 고영희님]

2030 부산세계박람회  
**BUSAN  
IS READY!**

부산에서 시작해 전세계가 함께하는  
인류의 더 나은 미래가치를 위하여

**미래,  
같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LG가 함께 응원합니다



World EXPO 2030  
BUSAN, KOREA

